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6

저/역/사/파/탁/악/△/원/압/의

서울시 중구 동소문로 33-2 여성문화의 집 3층 (우) 100-331 ☎ 02/275-8335 FAX 275-8333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여는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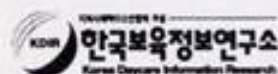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매뉴얼입니다.



서울 중구 북정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 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BO(하이텔) ZPIBA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6

자/역/사/외/탁/아/△/연/압/외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우리네 아이들

97.6월호

<통권 51호>



<표지사진>

1년 365일이 오늘만 같아도...
얼굴에 재밌는 그림으로, 예쁜
물감으로 색칠을 하고 학교에
갈 수는 없을까?
오월오일 어린이날은 정말
신나고 신나는 날.
(사진 / 수원 용기중기 이주영)

얼마나 생각하든 / 3

신명나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

남미영

부모교육 / 5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한 성교육 사례

김연숙

특집 / 12

독일 유아교육개혁에 대한 고찰

윤선영

통신이야기 / 25

정보찾기와 게시판 쓰기

이강선주

일본연수일지 / 31

일본에서의 보육원연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좋은 그림책 소개 / 33

아프리카어, 안녕!

김수중

고사외전 / 35

승급교육을 다녀와서

고영미

연장교육 / 37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장정희

교사재교육 소모임을 마치고

교육부

짜·임·새

연장소식 / 41

지역에서 펼친 어린이날 행사

김진숙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이에요

윤금주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어린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신현경

인천보육교사회 자축연을 마치고

이순

스승의 날을 맞아해서

안경아

천보육교사회 새내기선생님들 지켜봐주세요!!

편집부 '북한여성, 어린이 돕기' 정성껏 모금하였습니다

이로시마에서 온 편지 / 53

애육보육원

지택연 선생님들께

육아일기 / 54

나은미

유빈이의 살아가는 법 배우기

딱아소별곡 / 55

새터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오래들의 목소리 / 57

전경숙

출산, 복귀 그리고...

보육계동향 / 58

소식과 소식 / 59

편집부에서 / 61

1997년 6월호(통권 51호)/첫발행
1992.5.25./펴낸곳 지역사회학연구소
연합회/펴낸이 남미영/편집인 박정
애, 황미혜/펴낸날 1997년 6월3일

일하며 생각하며

.....

신명나서 하나가 되는 그 날을 위해

남미영 · 본회 회장

며칠전 시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저녁나절 시장으로 가는 골목어귀를 지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러가지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놀이라고 하는 것이 하도 회한해서 유심히 들었더니,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노래 아닌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놀이를 하더라는 것이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한숨을 쉬며 얼마를 또 지나려니까 두 쌍의 남매가 자기 여동생들을 마구 때리면서 놀고 여자아이들은 계속 울면서 맞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사회적 환경이 너무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토로하고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들의 놀이나 행동양태로 표출됨을 역사적으로 보아왔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아이들의 문제, 그것은 결국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회풍토에서 연유하는 것이 분명하건데 함께 살아가는 기성세대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환경과 제도의 불합리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어찌가 무거워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물론도 어느덧 1/2의 시간들이 지나가버렸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 중 앞으로 2개월 정도의 시간동안 우리는 보육교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야기에 이야기를 거듭하고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서 우리는 올해 97년을 맞았고 여름으로 들어서는 문턱에서「보육교사조직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보육교사조직의 결성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진정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보육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가?

우리가 보호하고 교육하려는 아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어른들의 모습을 모방하며 자라나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어떤 정신을 심어 주어야 하는가?

우리가 과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라고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미래의 기둥인 아이들의 모습에서 과연 진정한 미래사회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아직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방황하고 척박해지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우리가 일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맡겨지는 아이들 중에도 어른들의 잘못으로 정서가 메마르고 인성이 파괴되어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쏟아져오는 질문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보육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땅 3만여명의 보육교사들과 보육교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부모들이 진정 신명나서 하나가 되는 그 날을 위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에 답할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여름이 되길 바란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버려지는 아이들, 제역할을 못하는 부모 밑에서 방황하고 척박해지는 아이들, 어른들의 잘못으로 정서가 메마르고 인성이 파괴되는 아이들...

...

보육교사조직의 결성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진정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부모교육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한 성교육 사례

김연숙 · 봉천 씨썬이어린이집 교사

1. 들어가는 말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이고, 가장 중요한 환경은 가정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서부터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부모가 아이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준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이나 사회의 성범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는 각종 성적인 병폐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성문제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내 아이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를 성적 불평등이나 성범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 아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멀지만, 이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교육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연수받듯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일회적인 특별교육-극단적으로 말하면 세뇌교육-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성교육 역시 아이를 둘러싼 주변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제공되어지는 것이며,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모나 교사가 목적의식적으로 환경이나 놀이를 제공하고 또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교육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주변환경이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아무리 성교육 아니라 세뇌교육을 시켜도 아이에게 건강한 성의식을 형성시켜 주기란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1)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 얹혀 싸움같은 씨름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용원을 하기 시작했다. "누구, 이겨라!" "밀어버려!"... 그때 저쪽에서 다른 놀이를 하고 있던 여자 아이(씨름하는 남자아이의 누나였다)가 용원의 소리를 보냈다. "아무개야! 옷 벗겨, 옷을 벗기란 말이야!"

사례2) 두둘짜리 여자아이가 체구가 작은 세둘짜리 남자아이를 때렸다. 이 상황을 보고 6세 남자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맞아요?"

엄마를 때릴 때 옷을 벗기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에게 여성의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간에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가 아무리 남녀의 평등을 가르친다고 해도 이 아이들의 생각-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를 때릴 수 있다-을 바꾸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동등한 관계, 자연스런 애정표현' 이것이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출발이자 전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역할이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호기심-성기, 임신, 출산-등을 해결 해주는 방법, 그리고 적지 않게 나타나는 유아 자위행위 등에 대한 부모들의 현명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성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부분에 어색함을 갖고있고 이를 교육용 비디오나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와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한 성교육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 부모들의 자연스런 접근을 위한 도움말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러한 활동을 하기 전에 앞서 부모님들이 먼저 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아이들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놀이를 통한 성교육 사례

엄마, 아빠랑 그림 그리기

"엄마는 초롱이 그리고 초롱이는 엄마 그리자."

아이는 단순히 얼굴(눈, 코, 입), 팔, 다리만 그릴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가(아이와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의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아이 스스로 찾아 넣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초롱이 머리카라, 초롱이 귀... 초롱이도 엄마 귀 그려 줘야지."

그러면 아이는 더 많은 부분을 상세히 그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연스럽게 신체의 다른 부분을 유도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아이가 다른 부분을 표현하지 못하면,

"초롱이 찌찌."

"엄마 찌찌, 엄마 배꼽..."

대부분의 3-5세 아이들이 아빠에겐 음경을, 엄마에겐 유방을 그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성기를 엄마가 그려주게 되면 아이도 엄마의 성기를 표시해 줍니다. 아빠의 경우라면 스스로 '아빠도 찌찌가 있는데?'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지요. 평소에 목욕을 하면서 다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빠의 상징으로는 고추를, 엄마의 상징으로는 쭈쭈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는 모두 똑같이-그 기능과 외형은 다르지만-성기와 유두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

3-4세의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의 중요성을 알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안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이, 창피해', '부끄러워요' 등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아이로 하여금 '성기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성을 금기시 여기거나 성에 대한 음성적 호기심을 갖게 하는 원인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장이 도깨비]

옛날에 발가벗은 잠장이 도깨비가 살았대.

잠장이 도깨비는 멋진 꼴도 있고 눈도 2개, 입도 코도 예쁜 도깨비였는데 손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얼굴도 만지고 몸도 만져서 온몸 잠장이가 되어버렸대. 그런데 잠장이 도깨비한테는 꼬추가 없었대. 그래서 댜날 친구를 따라 다니면서 '꼬추 좀 보여 주라, 꼬추 좀 보여줄래?'하고 귀찮게 했대('꼬추 좀 보여줘' 할 때는 아이의 꼬추를 가리키며 장난치면서 재밌게 한다).

-꼬꼬아, 꼬추 좀 보여줘!

-안돼, 네 더러운 손으로 만질라구?

-꿀꿀아, 꼬추 좀 보여줘!

-싫어, 그건 보여주는 게 아니야.

-초롱아, 꼬추 좀 보여 주라.

-안돼, 꼬추를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니?

심술이 난 잠장은 도깨비 대왕님한테 찾아갔대.

"대왕님, 대왕님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꼬추를 달아주세요." 그랬더니 대왕님이 "너는 그렇게 발가벗고 더럽게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꼬추를 달아줄 수가 있겠냐?"하고 말하셨대. 잠장은 "아니요, 이제부터 다른 친구들처럼 옷도 입고 손도 깨끗이 씻어서 꼬추를 깨끗하게 할게요."

그래서 대왕님은 잠장이랑 약속하고 꼬추를 하나 달아주셨대.

잠장은 도깨비 대왕님이랑 약속처럼 옷도 입고 손도 깨끗이 씻어서 예쁜 도깨비가 되었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성기가 왜 소중한지를 이야기 속에서 설명해 줄 수도 있겠고 이야기를 조금 바꾸면, 지나치게 성기를 만지는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고치게끔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밀가루 주주

집에서 밀가루요리를 할 때 반죽을 조금 아이에게 떼어주면 아주 좋은 놀이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죽놀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이에게 훌륭한 놀이감입니다. 소근육발달과 촉각을 통한 즐거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요리를 통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높은 놀이감입니다. 특히 남자아이에게는 거부감 없이 요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부드러운 느낌을 피부처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반죽의 감촉에 대한 느낌을 물으면 어떤 아이는 '엄마 주주 같아요'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마 주주를 만들어 봐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엄마 주주 같지? 엄마 주주는 아기가 젖을 먹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반면에 나쁜 느낌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를 만짐으로 해서 오는 좋지 않은 느낌을 알고 표현하게 하는 것도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됩니다.



↑ 아이들이 점토로 만든 '내 몸'

앞치마 만들기

요즘은 어린이용 앞치마를 쉽게 구입할 수도 있지만 엄마와 함께 못 쓰는 형질을 이용하여 직접 '앞치마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아이는 자연스럽게 앞치마의 용도를 알게 됨으로써 앞치마에 대한 편견-남자는 입는 것이 아니다-을 버리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서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못쓰는 형질이나 헌 옷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본을 뜨고, 바닥에는 아이가 직접 털실로 단순한 모양을(지그재그) 내거나 -바늘 구멍을 미리 점으로 표시해줄 수도 있다- 어려우면 싸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게 할 수도 있다. 가장자리만 세탁소에서 울퉁퉁방지 오버록(over lock)을 치고 띠의 양끝에 찍찍이를 붙여주면 된다.

[실제]

앞치마를 만들면 언제(무엇을 할 때) 입을래? 엄마 말고 앞치마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니? 앞치마는 왜 입을까? 앞치마를 입지 않고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위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아이의 생각을 듣고 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느낀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혹여 대화중에 "난 남자니까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니야, 남자도 입는거야"라는 말 한마디로 아이의 생각을 바꾸려하지 말고, "그럼 요리는 누가 하는거야?" "엄마" "텔레비전에서는 아저씨가 요리하던데?" 라는 대화로 아이의 모순된 생각을 스스로 바꾸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장지책을 오려 만든
성역할놀이용 막대인형 →



역할놀이

엄마나 아빠가 아이와 흔히 할 수 있는 역할놀이는 엄마놀이(소꿉놀이)나 병원놀이입니다.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게 되고, 문제상황을 만들고 스스로 해결하는 등 온갖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더 다양한 역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1 / 미장원 놀이]

미장원놀이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가위, 빗, 앞치마, 거울, 머리핀...

엄마: 나는 아저씨예요. 파마하러 왔어요.

아이: 아저씨는 안돼.

엄마: 머리가 조금밖에 없어서 꼬불꼬불하게 많아 보이려고 그래요.

[실제 2 / 119 놀이]

요즘 아이들은 119놀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경찰놀이와 병원놀이를 적절히 배합해서 긴박감을 더하면 119놀이가 됩니다. 아이들끼리 할 때에는 남자아이가 구조원, 여자아이는 간호사를 하게 되는데 집안에서 엄마와 할 때 역할을 바꾸어 하게 되면 아이는 더욱 흥미롭게 놀이를 즐기면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용감한 119아줌마와 아픈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을 역할을 나누어 필요한 물건은 아이에게 집안에서 찾아오도록 합니다. 예) 밧줄(줄넘기), 방망이(신문지말이), 들것(이불), 산소호흡기(밥공기 뒷바닥에 끈을 붙인다)...

[실제 3-수리공 놀이]

평범한 가정에서 엄마는 주로 집안일만 하고 아빠는 뭘가를 고치는 일, 힘을 쓰는 일을 한다면 아이는 아빠가 하는 일에 더 흥미를 느끼기 쉽고 이는 곧 아빠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은 양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일의 불평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엄마가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빠가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아이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엄마는 아빠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빠는 엄마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모든 일을 엄마, 아빠가 똑같이 나누어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에게 엄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리공 놀이를 통해서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모습을 직접 보여 주면 더욱 좋고 장난감을 고치는 놀이를 해도 아이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인형 옛날얘기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살아야 하고 남녀는 동등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인형놀이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인형은 사람인형이어서 좋고 동물인형이어서 좋습니다.

[실제]

남자 곰돌이와 여자 곰순이가 따로따로 살고 있었어요. 둘이는 너무너무 심심해서 둘이 같이 친구하기로 했대요. 둘이는 서로 친해졌는데 예쁜 아기가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둘이는 사랑을 하게 되었고 아주 예쁜 곰순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되었대요.

요즘 부모들은 딸이건 아들이건 간에 '내 아이가 혹시 성폭력을 당하지나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성폭력은 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인으로서-부모나 교육기관에서-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방지책은 세워두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교육의 여러 측면 중에서 특히 성폭력부분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조건 낯선 사람을 피하라고 교육할 수도 없고 성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놀이 방식은 어떨까요?

목욕놀이

아이들이 성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도 금기시 여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목욕놀이입니다. 엄마나 아빠와 서로 발가벗고 몸을 씻어주면서 안아주고 만져주며 애정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샷별이를 사랑해요. 샷별이도 엄마를 사랑하지?"

"샷별이랑 엄마, 아빠는 너무 많이 많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만져주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지?"

"샷별이는 누구를 사랑하나?"

아이를 만져주고 안아주면서 목욕을 하게 되면 아이도 스킨십(skinship)의 좋은 느낌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건 사랑하는 사람끼리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좋

은 느낌을 알게 하는 것이 싫은 느낌을 아이가 느끼고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누군가 아이를 만지고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에게 주입식으로, 누가 널 만지면 싫다고 해라, 도망가라 등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잘못된 이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 느끼고 자기의 느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퀴즈놀이

"옷중에서 언제나 꼭 입어야 하는 옷은 뭘까?"

"왜 그렇지?"

"매일 매일 갈아입어야 하는 옷은 뭘지?"

"왜 그렇지?"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어떤 옷을 입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성기는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옷과 여름옷을 정리할 때는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거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옷들은 입을 수가 없을까, 그런데 항상 입어야 하는 옷은 뭘까?"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팬티는 다른 옷의 용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매일 갈아입는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가려야 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단지 주입식으로 창피하다, 누가 보면 안된다, 못 만지게 해야 된다 등의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요즈음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성교육자료책자가 시중에 많이 나와있다.



특집

독일 유아교육개혁에 대한 고찰

윤선영 · 호서대 보육교사교육원 강사

- 목 차 -

- I. 머리말
- II. 독일의 유아교육개혁
- III. 유아교육개혁의 배경 및 영향
- IV. 유아교육개혁의 결과
- V. 맺음말

5월23일-24일 양일간 '97춘계영유아보육학회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영유아보육학회10집에 실린 글로서 지탁연 회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윤선영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고 선생님께서 흔쾌히 승락을 해주셔서 본지에 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개혁 추진방안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I. 머리말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체제 개혁방안>을 발표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이후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에 또다른 전환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있고 그외 선교원과 사설학원 등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러한 기관들의 관련법, 관할행정부처, 교사교육기관 등 서로 다른 체제를 한꺼번에 변화시켜야 하는데 대한 염려와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여러 각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 유아교육개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유아교육현황을 살펴볼 때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가, 어떠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교육에 지원하고 있는가가 주요 관심사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제도와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인가를 고찰해 본 자료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의 동기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위원회가 주장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의 필요성(유아교육의 기회균등, 사교육비 부담해소, 여성취업,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치 측면)에 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공교육화의 필요성이 비현실적인 부분을 함유하고 있어(표갑수, 1997) 내면에 행여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아교육 및 보육부문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반응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보다, 오히려 개혁안에 따른 결과가 모순, 갈등,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유아교육체제개혁(안)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1997;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7). 이것은 서로 다른 개혁에 대한 관심이 각기 다른 영향을 주어 개혁의 현실화가 결과적인 효과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구서독(통독되기 이전의 서독을 의미하나 편의상 이하 독일로 칭함)의 경우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유아교육개혁이 이루어졌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유아교육개혁의 과정은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동시에 교육내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유아원을 학교화해서 교육제도의 일부로 삼입시키는 작업과 초등학교 교육과 연결되는 커리큘럼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교육개혁과정에 작용한 요소는 다양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회)교육학적 움직임이 서로를 자극하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개혁의 주역은 교육의 경제성에 관심이 있던 정치가, 촉진제 역할은 사회운동 및 학생운동이, 교육내용 및 목표설정은 사회교육학이 각각 담당했다. 정치적 지원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경험한 역사적인 과정이었기에 개혁의 효과적인 측면과 좌절 또한 그 과정의 결과로 측정되어지고 있다(예를 들면 Colberg-Schrader & Krug, 1980).

독일의 유아교육개혁을 고찰함에 있어서 단순히 위의 두 과정을 중심으로 한 귀납적 서술 방법은 자칫 진부한 결론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필자는 독일의 유아교육개혁의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제도확립이 이루어졌고 어떤 유아교육이 정착되었는가에 초점을 둔 연역적 서술 방법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우선 개혁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1. 독일 유아교육개혁의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2. 유아교육개혁의 배경과 그 영향을 정치적 관심, 사회비판운동, 사회교육학적 시각과의 관계로서 밝히고, 3. 그에 따른 개혁의 결과를 고찰해보겠다. 끝으로 독일 유아교육개혁의 특성을 이끌어 내어 유아교육개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겠다.

II. 독일의 유아교육개혁

Kindergarten(이하 유아원으로 표기함)¹⁾은 교육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회복지적인 기능을

1) 만 3세에서 5,6세까지 취학전의 어린이를 돌보는 Kindergarten을 유치원이라 칭하지 않고 유아원으로 번역한 것은 Kindergarten이 교육기관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으나 사회교육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비교해 교육부 관할이 아닌 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통일관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 보육

중점적으로 하여 취업모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연스럽고 "어린이다운 발달과정"을 장려하는 곳이었다. 교육관은 프뢰벨의 이념이 주를 이루어 놀이감, 보육, 통합심리에 의거했으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독자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다. 유아원의 과정은 아동의 조기발달을 강조하는 학교에 대항하고, 대신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능력과 행위방법을 촉진시켜 학교교육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다(Hoffmann, 1968: 347).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연령(5-6세)의 아동을 위해서는, 놀이에 개입함으로써 아동의 자발적인 조성능력을 촉진시키는, 즉 놀이중심 행위에서 작업중심 행위로 전환시키는 과제를 가지고 있을 뿐, 능력과 경정을 추구하는 학교교육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60년대 초 교육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유아원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조사결과를 가져왔고, 질적인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불만족으로 표현되었다. 유아원의 자리수는 3-5세의 전체 아동의 1/3 정도만 수용할 수 있었고, 교육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서 결손가정을 대신한 가정교육에 불과했으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와 아동의 비율(1:52)도 상당히 열악했다(독일 교육위원회, 1970).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의 구조를 확립하고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유아교육컨셉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했다. 이로써 100년 이상 지녀왔던 유아원의 전통은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당시 큰 영향을 주었던 조기교육에 대한 대외적 논쟁이 교육의 경제성 증대(III-1. 참조)에 있었으므로, 유아원에서 환경에 의한 학업성취 능력 결함을 균등하게 평준화시키는 보상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실시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후 4, 5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인 보상교육은 조기교육에 대한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결과가 있었다(Grossman, 1987 재인용). 60년대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보다 총체적인 유아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후에 학업성취를 더욱 약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자, 결손가정과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보상교육(kompensatorische Erziehung)은 사회의 발달에 따른 가족의 기능상실을 보완하는 보충교육(komplementarische Erziehung)으로 그 목적을 달리하게 되었다(Bronfenbrenner, 1974, 1976; Suescher, 1979). 이에 영향을 받은 독일의 유아교육은 어린이의 기본적인 삶의 배경인 가족에 범위를 확장시켜 부모의 교육비 지원, 부모교육프로그램, 총체적인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는 70년대에 만 3 - 5세 연령의 어린이가 70%를 충족시키는 유아원의 양적 확대를 이루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원을 전체 교육시스템의 첫단계라고 인정할 하게 된 사실이다.

새로운 유아교육컨셉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아교육모델실험(1971-1974)>과 <유아교육시범프로그램(1975-1978)>의 두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발달하게 되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학자들이 동반한 가운데, 현장에서 어린이, 교사, 부모 등과 협력작업을 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주정부 단위의 연구는 다시 전국적인 망을 형성해서로 상담과 정보교환이 용이로운 가운데 이루어졌다.

<유아교육모델실험>의 과정은 학교교육으로 이어지는 5세아를 위한 적당한 기관 설정과 어린이의 인지적 능력을 촉진하는 커리큘럼 개발이었다. 1970년 "중앙정부의 교육보고서"에 의하면 그

기능을 통합한 Kindergarten이 오히려 보육시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교사교육은 3-4년간의 보육교사 전문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교육 및 보수교육은 복지부의 관할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커리큘럼은 5세아 어린이 그룹의 유형과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고 초등학교로의 전환과정을 용이롭게 하여,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Zimmer, 1985 재인용).

5세아에게 학교 병설유아원(Vorklasse)이 적합한지 아니면 기존의 유아원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결과, 5세아를 유아시설부문에 또는 초등학교부문에 두는 조직적인 문제를 정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3-5세아를 위한: 필자 주) 유아교육시설을 다니는 것이 5세아만을 위한 특정한 유형의 유아교육시설을 다니는 것 보다 전인적 발달에 더 의미가 있다(교육계획과 연구지원을 위한 중앙-지방자치정부 연합회(BLK), 1976: 7)라고 밝혀졌다. 그 이후 학교병설 유아원(Vorklasse)은 더 이상 설립되지 않았고 실험기간에 세워진 시설만 남아있을 뿐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3-5세아가 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혼합그룹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유아교육모델실험〉을 통해 나온 커리큘럼의 안은 다양했다. 그것은 관련범주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즉 기능지향적 안, 학문 및 훈련지향적인 안, 상황지향적인 안으로 나뉘어진다. 상황지향적인 안은 해방주의적·사회교육학적 견지에서 사회적 학습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Zimmer, 1985). 왜냐하면 유아교육 관련 학자들과 유아원 교사들이 학교화된 유아원 교육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아원에서는 읽기와 셈하기, 훈련식 교육, 기계적인 기능습득이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III-3 참조).

〈유아교육시범프로그램〉은 모델유아원에서 개발한 커리큘럼과 교수자료를 일반 유아원에서 시행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의 상황과 관련되고, 그들의 상황을 지향하는 상황중심교육이 형성되면서 10여년간의 개혁작업은 그치게 되었다. 상황중심교육은 시범프로그램 이후 인정을 받게 되었으나, 그 이후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정치적 노력의 결과, 교사교육과정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점, 외식교육의 필요성이 절하된 사회적 배경에 의해 더 이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윤선영, 1993). 오늘날 독일 유아원의 현황은 80년대 이후 커다란 변화없이 개혁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출산율의 감소에 의한 상대적 효과 있을 뿐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며, 질적으로는 다양해진 국민의 생활방식과 사고방법에 의해 통일된 프로그램의 적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시설 나름대로의 교육지침을 세운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는 편이다.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유아원 교육을 위해 상황중심교육을 재조명하고 다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독일의 유아교육개혁은 전체 교육기관(학교)의 개혁 안에서 이루어졌으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독일의 유아교육개혁과정은 간단히 "유아원의 학교화에서 탈학교화의 논쟁"이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아원이 "보호소"라고 인식되었던 것이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나, 가족과 아동복지를 지향하는 과거의 이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III. 유아교육개혁의 배경과 그 영향

독일이 1970년대에 유아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1950년대 말에서 70년대까지 있었던 국제적으로 고조화된 경쟁과 유아교육의 왕성한 논쟁에 적

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회균등주의, 조기교육, 능력개발이라는 국제적 관심에 적합한 유아교육기관의 형식적·내용적 개혁을 시도하려 했던 의도(독일 교육위원회, 1970; 1973)와, UNESCO, OECD, 유럽회의, 유럽공동체 안에서 국제적 협력작업을 통해 자국의 개혁능력을 확보했던 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반권위주의 교육이 사회비판운동과 함께 유아원의 학교화를 꾀하는 교육정책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교육의 시각을 넓히게 되어, 아동중심교육 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환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사회교육학적 입장은 조기교육의 의미에 전통적인 유아원교육의 역할(보육)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어, 유아교육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쟁 방향을 한곳으로 집중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유아교육개혁 배경을 정치적, 사회적, 교육학적인 관계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개혁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겠다.

1. 교육정책과의 관계

1958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는 서방 강대국들에게 공통적인 쇼크를 주었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가졌던 서방 강대국들의 자존심은 과학의 경쟁에서 뒤졌다는 경보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의 관계는 과학발달에 근거한 경쟁의 관계로 전환하였다.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국가들은 그들의 교육기관이 경쟁력에 적합한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연구조사 결과 앞서가는 나라일수록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여 교육이 주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을 더 이상 개인적 경쟁에 관심을 두는 사적인 인성발달의 의미에서가 아닌, 국가적 단위의 경쟁에 관심을 둔 국민경제성장의 의미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경쟁압력에 처한 국가들은 교육부문에 더욱 많은 개입을 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아동의 사회화, 발달, 학습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학교교육 실태는 보다 나은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결함이 많아 교육내용의 변화와 제도의 재확립은 불가피했다(Grossmann, 1987).

동시에 연구조사된 교육학적 입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은 단지 타고난 능력 뿐 아니라 교육 또는 학습법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이러한 법주는 어린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취학 이후 보다 더 큰 효과를 약속해 준다고 하였다(III-3 참조). 그리하여 취학전 유아교육과 가정교육은 갑자기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행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5세아를 중심으로 한 보충교육의 효과를 통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하였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행된 프로젝트는 위와 같은 정책 중심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민주적이고 자율성을 넓게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유아교육모델실험〉은 각 지방자치정부(주 정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게 하였고, 프로젝트에 참가한 모든 유아원 연구팀들 또한 자치적으로 관찰하게 하였다. 모델 유아원 연구팀의 연구원 중 한명은 매주 한번 유아원위원회에 참석하여 행정담당과 관계를 가졌다. 유아원위원회는 주 정부에 유아원 자치적 조직력과 팀웍을 주장하여 연구원들의 튼튼한 위치를 확보했다. 이같은 여건은 주 정부의 집권당에 따른 영향에 의한 것으로, 예를 들어 사회민주당(SPD)이 집권한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방의 경우 자율권은 넓게 허

용되었다(Grossmann, 1987).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논쟁은 매일 매체에 등장할 정도로 그 논란의 열기가 뜨거웠고 민주적인 연구팀의 체계와 자율적인 분위기는 정책적으로 여러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교육정책에는 그에 적합한 조건이 있었다. 첫째로 독일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다. 경제부흥을 일으킨 독일은 1965년에서 1975년 사이 유아교육영역의 교육비를 네배 정도 늘릴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둘째로 사회민주주의적 정권이 개혁에 호의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셋째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작업을 들 수 있다. 당시 전반적인 교육개혁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개혁과 연구지원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연합회(Bund-Länder-Kommission fuer Bildungsplanung)를 두었는데, 이 연합회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간에 걸친 전체교육기관의 재계획안을 세우고 재정지원에 대한 제안을 맡았었다(1995년도까지 지속될 계획안은 1982년 중앙정부 대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작업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유아원위원회, 독일 교육위원회(1965-1975), 학술위원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학자들, 학자들은 다시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협력작업을 이룬 것은 개혁작업을 원활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이후 개혁을 위한 작업은 침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60-70년대의 개혁과정을 유아교육법 또는 하나의 유행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Liegle, 1985). Liegle는 기간적으로 끝나버린 개혁의 이유를 첫째 경제의 침체, 둘째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개혁의 교육정치적 의지감소, 셋째 집권당의 변화로 보고 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업자의 수가 늘어나고 경제가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자 사회보장비는 늘어남에 비해(1970년 전체지출의 20.6%에서 1986년 47.1%로 증가) 교육비는 감소(1970년 전체지출의 12.6%에서 1986년 8.9%로 감소)하였다(연방통계국 연간지, 1989).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어려워진 것이다. 기회균등을 강조하던 교육정책은 보상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예를 들어 Bronfenbrenner, 1974)와 맞물려 가족정책으로 변화되면서 유아원의 기능은 전통적인 학교의 기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동시에 유아교육을 가족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부과하려는 보수적인 정권이 늘어남에 따라 1977년 이후 계속적인 개혁작업은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오늘날 독일 유아원이 전체 교육제도의 한 부분으로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교육기관(학교)에 비해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원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 사회비판운동과의 관계

독일의 유아교육개혁은 1960년대 전후로 한 사회비판운동과 맞물리고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파괴된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다해왔다. 그러나 나찌시대의 경험과 전쟁이 가져다 준 깊은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채 "경제기적"을 일으켜 60년대에 이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부상되었다.

따라서 국민은 한편으로 경제력에 맞는 높은 노동력의 기대를 만족시켜야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 나찌시대의 권위주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회적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국민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와 제도의 모순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전쟁 이후 1950대 말에서 1970년대는 독일역사에서 마르크스의 사회비판 이론과 프로이트와 같은 심리분석 이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성했던 시대로, 사회학과 심리학 및 교육학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후기자본주의"에 들어선 당시 사회구조는 임금(직업)과 교육제도를 결정하는 계층의 분화라는 모순을 가져왔다. 이러한 모순은 구조적 불평등을 조성하여 상대적 빈곤, 청소년 범죄, 인종간의 분쟁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으로 특히 열악한 그룹인 어린이, 여성,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노인 문제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Marcuse에 의하면 물자가 풍부해진 "후기자본주의" 사회에는 사회의 탈정치화 현상과 지배논리에 입각한 조정이 강화되어, 국민의 정치적 의식을 감소시키고 대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국민의식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Bendit & Heimbuchner, 1979에서 재인용).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지배논리의 확장을 위한 기본적 여건이 되며 이것은 다시 체제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사고, 가치, 행위규범의 모델을 재생산하여 무비판적이고 신화적인 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에 대한 반발은 학생운동(1967-1968)이 큰 폭을 차지했다. 학생운동은 원래 제3 세계(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력 개입에 반발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사회비판운동으로 변질되었다. 비판적인 학생의 일부는 이러한 사회상황을 "반권위주의 교육"으로써 변화시키기를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유아교육 마저 교육정책의 지배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권위주의 교육운동"은 부모(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유아원(Kinderladen)을 만들고 독자적인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기존의 유아원교육에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동유아원은 개인의 고립화, 여성과 어린이의 압박, 부르조아 지향적 사고, 성의 타부시, 사적 공적 영역의 분리, 어린이와 어른의 종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모든 유아교육기관 및 가정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교육, 여성과 어린이가 착취와 피해를 받는 상태 지양, 사회와 관련한 의식교육, 성교육, 열린교육, 어른(교사와 부모)과 어린이와의 파트너 관계 형성 등을 실현하였다.

"반권위주의 교육운동"은 사회비판적 이론과 심리분석적 이론 즉 마르크스의 초기 저서와 심리분석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목표는 인간의 자연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을 키워나가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며, 반권위주의가 그 도구였다. 심리분석이론은 인간과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를 인식하게 하였고, 인간의 리비도(성적 욕구)가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 따라서 "반권위주의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조정하는 지배구조의 원리와 비인간화 현상을 인간적인 욕구 특히 성적 욕구를 자유롭게 발달시킴으로 대항하고자 했다(Sass, 1972).

반권위주의 교육은 정치적 성격이 강해 어른(부모)들의 정치적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부모들은 부모공동체(Elternkollektiv)를 형성하여, 부모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어린이 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였다. 어린이들은 어린이공동체(Kinderkollektiv)를 통하여 그들의 욕구를 자유롭게 발산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감각적·인지적 경험을 마음껏 누리게 하였고, 결함의 낙인을 받지 않고 환경의 모순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반권위주의 교육은 주체(어린이)와 객체(환경)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지나치게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갈등상황에서의 학습경험을 도외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어린이는 갈등상

황에서 자아와 초자아의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을 경시했고, 사회현상을 생물학적 시각으로 제한시켰다는 것이 문제였다(Sass, 1972).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반권위주의 교육운동은 유아교육모델 연구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상황중심교육이 반권위주의 교육에 바탕을 두고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Zimmer(1985)는 상황중심교육과 반권위주의 교육간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

- 유아의 사회화는 사회적 상황을 근거로 한다.
- 어린이들의 욕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이와 어른이 파트너 관계를 가지고 민주적 교육을 실현한다.
- 신화된 사회적 관념을 현실화 하고, 어린이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심어준다.
- 교육은 문제의식을 자극하는 것이며, 유아원을 학교의 범주에만 제한하려 했던 경향에 반해 오히려 사회적 도덕적 범주로 확장시킨다.

반권위주의 교육운동이 유아교육개혁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기존의 유아교육학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심리분석적·사회학적 측면을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 접목시켰다. 둘째, 사회적으로 열악한 집단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교육에 영향을 주어 결함이라는 선입관에서 출발한 보충교육에 교육대상을 중심으로 한 환경극복이라는 새로운 측면을 마련하였다(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의 공동유아원은 부모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이유로 주로 중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이 돌보아지고 있다). 셋째, 유아원을 전통적인 학교제도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개혁을 시도했던 교육정책의 방향을 사회교육학적인 면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넷째, 사회개혁을 교육개혁과 일치시킴으로써 교육개혁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3. (사회) 교육학적 측면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주로 유아교육 내용의 발달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유아원 교육을 고찰해보겠다. 유아원 교육은 위에서 살펴본 정치적 사회적 측면과 함께, 학습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커리큘럼개발에 끼친 영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1960년대 독일의 교육학은 주로 미국의 발달심리학 모델중 아동의 단계적 발달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아동발달은 환경조건과 특정한 관계가 있긴 하나 외적 개입에 의해서만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견해는 20세기 초의 입장이 다시 받아들여져 "발달"이라는 개념을 "외적 발달조건과 내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Stern, 1930)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지능 테스트에 대한 찬반론도 분분했지만 결국 타고난 재능과 환경의 영향은 지능이 형성되는데 그저 관계가 있다는 진부한 결론에 도달하였다(Hemmer & Obereisenbuchner, 1979).

발달, 재능, 지능과의 관계에서 본 아동의 학습능력에 대한 인식은 독일에서 처음 Roth(1968)에 의해 알려졌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학습의 전제조건이 될 뿐 아니라 그 결과라고 주장했고 "사회화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초기 유아교육개혁에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교육정책자들은 학업성취도는 환경조건의 변화 다시 말해 학교와 같은 수업과정으로의 변화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동시에 알려진 Bloom(1964)의 연구결과 또한 이를 더욱 고조화시켰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의 지능은 4세까지 50%가 발달하고, 30%는 5세에서 8세까지 그리고

나머지 20%는 18세까지 발달한다고 했다. 이것은 교육의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기 원했던 정책에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행동의 조절이론(행동주의 심리학)을 유아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교육공학은 교육정책의 기대를 채워주리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유아교육모델실험>은 수업의 정확한 목표진술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압박을 받았다. 모든 커리큘럼모델은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Robinsohn(1967)은 학교의 수업계획안이 단지 학습거리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며, 학습과정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전반적인 목표와 무관하다고 당시의 학교수업을 비판하였다. 그러한 모순을 그는 아동의 상황과의 관계로 극복하려 했는데, 특히 유아원의 사회교육적 전통은 상황지향적 커리큘럼을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학설은 1. 상황은 동일시킬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 2. 교육의 질은 상황에서 자율적인 행위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결정된다 3. 커리큘럼의 요소는 이와 같은 질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요약된다.

Robinsohn은 그의 상황개념에 Dewey의 교육이념을 받아들여 교육이 삶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학교교과과목과 교수방법이 물을 벗어나 열린교육으로 바뀌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의 컨셉은 유아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에 지표로서 받아들여졌고, 유아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내용 전반에 걸친 수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교육학적 측면은 베를린 연구팀이 Robinsohn의 <커리큘럼 수정구조컨셉(1967)>을 수용, 상황중심교육안을 제안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의 개념은 다시 수정과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Robinsohn의 상황개념이 고정적인 관념에 제한된 것에 비해 "상황중심교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학습자에 의한 단서상황 포착과 이해, 학습자의 상황으로부터 학습목표 설정, 프로젝트와 놀이를 통한 학습, 학습자의 상황인식과 극복(또는 변화)이라는 "상황중심교육"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를린 연구팀의 책임연구원이었던 Zimmer는 그 근거를 라틴아메리카에서 시도된 Freire의 교육이념에서 설명하고 있다(Zimmer, 1987). 상황중심교육이 <유아교육시범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받게 되자, 어린이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통합교육을 당연시 여겼던 유아원의 사회교육적 전통이 다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데에는 물론 학자들의 공헌도 컸지만 전통적인 학교에 비해 제도 면에서나 행정면에서 유아원이 독자적인 자율공간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부연 설명하면, 유아원 전체의 수 중 1/3만이 시 또는 주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에 의한 것이었고, 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인 대다수(2/3)의 운영자, 교사, 부모들의 양가지방으로 사회비판운동과 학자들의 의견에 쉽게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IV. 유아교육개혁의 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유아교육개혁은 크게 세가지 움직임이 각기 다른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접목되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개혁작업이 많은 갈등과 논쟁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비록 10여년 간의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개혁작업이

었지만,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고 또 그로 인해 그쳤기 때문에, 개혁 이후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모두를 나타내고 있다.

개혁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개혁의 결과가 원래 의도했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채 개혁작업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개혁과정 자체에 작용한 여러가지 여건의 상호 역동적 관계로써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그외 다른 요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지속되었어야 할 개혁 작업을 침체시킨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겠다.

첫째, 개혁작업을 위한 프로젝트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져야 할 개혁과정이 전통적인 관리구조와 동화되어야 했고, 관리구조의 개혁의지 여부에 의해 좌우되었다(Flaake et al., 1978). 국가 및 정부가 주역이 되어 실시된 개혁은 실질적인 추진력과 작업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해 주었으나, 정권교체로 말미암아 결국 국가 및 정부에 의해 그 조건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즉, 개혁이 본래의 의식에 근거해 정치적으로 뒷받침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의식과 개혁의식이 서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유아교육시범프로그램>은 관과 학문의 서로 다른 개혁의도가 동시에 작용했다. 그것은 여러가지 개혁안을 제시하여 개혁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였으나, 수시로 변하는 개혁의 원리를 야기시켜 정치적으로 관철되기 어렵게 하였다.

셋째,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 사회적인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사회운동이 나중에 정치화 및 폐쇄되지 못하자 교육개혁은 결국 보수적인 정치에 흡수되기 시작했고, 국민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욕구 또한 감소하여 지지력이 상실되기 시작했다.

넷째, 학자들이 동반된 연구작업은 정해진 연구기간의 시간적인 압박감과 개혁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오는 정치적 압박감 때문에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프로젝트의 기간이 끝나자 개혁을 위한 재정적 조직적 지원, 내용적 발달을 촉진시켰던 상호의사소통망과 상담의 도움 또한 끝나 버렸다.

다섯째, 개혁의 결과여야만 했던 교사교육의 질의 향상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았다. "상황중심 교육"에 의거하면 교사는 자신의 교육학적 관점 뿐 아니라 강한 사회 및 가족정치적 양가감정이 있어야 하고, 교육활동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확대된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이 높은 전문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사교육과정에는 그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 이것을 Derschau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아교육개혁과 교사교육과정과의 연결을: 필자 주) 특히 어렵게 했던 것은 보육교사사범학교가 전통적인 학교제도에 속해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교사교육이 구체적인 교육현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관료주의적 원리와 학교행정주의적 원리는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사회적 요구 보다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Derschau, 1991:187)".

여섯째, 지속적인 개혁을 수축시켰던 요인 중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바로 유아교육을 위한 투자가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 구조에서 재생산 여건을 가장 낮게 보장해 준다고 평가된다는 점이다. 유아교육정책이 가족정책으로 바뀌면서 여성정책과 아동정책에 대한 보수적인 고정관념은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고 있는 법적 근거(헌법 제 6조 2항: 아동의 양육과 교

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이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는 감독한다.)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대상 아동을 위한 양적 제공 사이에는 실질적인 모순이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Andruschow et al., 1993).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운동은 유아원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긍정적인 효과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으나, 개혁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유아원 역사에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첫째, 유아원 교육의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유아교육모델실험> 이후 "청소년지원법"에 보호의 성격만 명시되었던 유아원이 "보호와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명시되기 시작하였으며, 보호, 교육, 인격형성의 과제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

둘째, 유아원의 양적 확대이다. 1965년에서 1975년 사이에 증가한 유아원의 자리수는 952857개에서 1478856개로 55%나 늘어났다. 물론 이 통계는 각 주의 상황에 따른 차이를 포함한 것이다. 개혁 초기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한 출생률은 취원율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또한 교육적으로 적합한 환경요구에 근거해 교사 대 아동의 비율(1.3:15)을 줄이는 결과도 가져왔다.

셋째, 가장 본질적인 효과로 교사의 직업관과 역할의 변화이다. 두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은 학자들이 동반한 가운데 어린이의 욕구와 능력에 융통성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계획을 시도해 보는 역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후 자신들의 일이 더욱 "확실해지고, 의식적이 되었으며, 교육도 방법적이 되었다(독일 청소년연구소, 1979; Krappmann, 1983)"고 한다. 이는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전문성을 획득하게 하였다.

넷째, 전문가(학자)들과의 협력작업의 경험은 유아원 교사들의 새로운 작업형태, 즉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과 교사들간의 팀워크(Team-work)를 자극하여 교사 재교육과 상담에 모델이 되었다. <유아교육모델실험>에서 학자들이 모데레이터(Moderator) 역할을 하며 3000여개의 유아원에서 교사들과 팀을 이룬 작업은 교사들에게 좋은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서로의 경험 교환을 가능하게 하였고, 교육현장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게 했을 뿐 아니라, 행정부, 운영자, 교사들의 기대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담당했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사들에 의해 기록된 현장경험을 선호하고 또 담임시된 유아원내 교사들과의 협력작업은 그 때의 경험이 중요한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며, 재교육에서 슈퍼비전(Supervision)을 이용하는 점, 관찰 행정부에 상담부서를 두어 관-운영주체-교사-부모의 갈등을 돕고 있는 것은 바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다섯째, 유아원에서의 열린교육의 실시이다. 아동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제는 교육목표가 학습내용과 아동의 능력에 제한되지 않고 유아원의 문을 열고 아동의 전체 경험과 환경을 연결시키게 되었다.

위의 긍정적인 측면은 독일의 유아교육개혁이 비록 만족스럽게 끝나지는 않았으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유아원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유아원이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는 취학전 어린이를 위한 기관임이 자명해진 이후, 개혁의 경험은 영아보육시설(Krippe)과 방과후 아동반(Hort)의 발달이 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V. 맺음말

독일의 유아교육개혁은 그 발단과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제도와 내용적인 면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5세아를 위한 특별그룹과 학교화를 추구했던 커리큘럼이 무의미해졌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시설의 장점이 살려지고 교육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개혁작업이라기 보다는 강화작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독일의 특성은 유아교육 또는 보육 부문의 개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또는 국가에게 몇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기존에 있는 유아교육 또는 보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변화도 개혁도 현실을 초월할 수 없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은 특히 개혁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하나의 유아교육기초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짧은 시간을 머문다 하여도 유아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총체적인 경험을 한다. 교육과 보육의 의미를 통합한 것을 유아교육의 근본 즉 최소한의 합의점으로 이해하고,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유사시설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안을 확립하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시설의 기능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제도적 위치 또한 확립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추진력은 필수이다. 독일 또는 그밖의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치가 주역이 되지 않고는 조직적, 재정적 지원이 어려워 개혁작업은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권의 의도나 정치적 상황이 주는 영향은 경시할 수 없으나, 문제는 어떻게 사회적 욕구와 접목시키느냐에 있다.

넷째, 따라서 사회적 지지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개혁은 곧 사회개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도가 약하면 개혁의 추진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를 볼 때 개혁작업은 사회의 움직임과 시대적으로 접목되었을 때 가장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교육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조사에는 부모의 욕구, 학자들의 요구, 교사의 요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욕구조사이다.

다섯째, 유아교육 또는 보육 시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시설이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바로 이 질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화로 향한 발달과정은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학생폭력, 비행 청소년의 증가, 유아의 스트레스 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교육내용과 형식 모두가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여섯째, 여성정책과 교육정책은 접목되어야 한다. 여성이 대부분 교사인 점, 취업모의 자녀와 전업주부의 자녀교육을 모두 고려한 교육 및 보육 정책이 여성정책과 접목되어야 한다.

개혁은 위의 조건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것의 결과가 바로 개혁의 결과가 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혁이 아니더라도 개선이라는 차선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개혁위원회(1997)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체제개혁(안). 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체제개혁(안)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1997)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체제개혁(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지역사회학아소연합회(1997) 유아교육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 교육개혁위원회에 발송한 자료.
표갑수(1997)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체제개혁(안)에 대한 공청회 공술자료. 유아교육체제개혁(안)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7-13
Andruschow, K. et al(1993). Auf die Kitaplätze. Ferug. Los. Berlin.
Arbeitsgruppe Bildungsbericht am Max Plank 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1990). Das Bildungsberi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 Überblick für Eltern, Lehrer und Schüler. Hambrug.
Bendit, H. & Hembuchner, A(1979). Von Paulo Freire lernen. 2th ed. Munchen.
Bloom, Benjamim S.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Bronfenbrenner, U. (1974). Wie wirksam ist kompensatorische Erziehung? Stuttgart.
Bronfenbrenner, U. (1976). Ökologische Sozialisationsforschung. Stuttgart.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1976). Fünfjährige in Kindergarten. Vorklassen. Eingangsstufen. Munchen.
Colberg-Schrader H. & Krug, M. (1980). Arbeitsfeld Kindergarten. Munchen.
Derschau, D. (ed) (1991). Entwicklungen im Elementarbereich. Fragen und Probleme der qualitativen und rechtlichen Situation. Deutsches Jugendinstitut. Munchen.
Deutscher Bildungsrat(1970). Strukturplan für das Bildungswesen Empfehlungen der Bildungskommission. Bonn.
Deutscher Bildungsrat(1973). Zur Einrichtung eines Modellprogramms für Curriculum-Entwicklung im Elementarbereich. Empfehlungen der Bildungskommission. Bonn.
Deutsches Jugendinstitut. Projektgruppe Erprobungsprogramm(1979). Das Erprobungsprogramm im Elementarbereich 3 Teile. Munchen.
Flakke, L. et al(1978). Das Kita-projekt. Ergebnisse einer wissenschaftlichen Begleitung zu einer Reformmodell öffentlicher Vorschulerziehung. Forschungsberichte des Instituts für Sozialforschung. Frankfurt/Main.
Grassmann, W. (1987). Kindergarten. Eine historisch-systematische Einführung in seine Entwicklung und Pädagogik Weinheim, Basel.
Hemmer, K. P. & Obereisenbuchner, M. (1979). Die Reform der vorschulischen Erziehung. Muenchen.
Hoffmann, E. (1968). Frühkindlich Bildung und Schulanfang. In B. & S. Cords(Eds), Erziehung in früher Kindheit. München.
Krappmann, L. (1983). Förderung von Kindern im Kindergarten. Auswertungsbericht zum Erprobungsprogramm im Elementarbereich. In L. Krappmann & J. Wagner, Erprobungsprogramm... Bonn.
Liegler, I. (1985). Die Reform des Elementarbereichs im internationalen Zusammenhang. In J. Zimmer(ed), Enzyklopädie Erziehungswissenschaft, 6th ed. Erziehung in früher Kindheit. Stuttgart. 72-96.
Robinson, (1967). Bildungsreform als Revision des Curriculum. Berlin.
Roth, H. (Ed) (1968). Begabung und Lernen. Ergebnisse und Folgerungen neuer Forschung (Deutscher Bildungsrat. Gutachten und Studien Bd. 4). Stuttgart.
Sass, H.-W. (1972). Antiautoritäre Erziehung oder Erziehung der Erzieher. Soziales Lernen in Erwachsenenengruppen. Stuttgart.
Stern, W. (1930). Psychologie der frühen Kindheit bis 6. Lebensjahr. Leipzig.
Yoon, S.Y. (1993). Vorschulerziehung in der BRD, eine Analyse des Situationsansatzes in seiner Beziehung zur Pädagogik Paulo Freires. Diplomarbeit. Berlin.
Zimmer, J. (1985). Der Situationsansatz als Bezugsrahmen der Kindergartenreform. In J. Zimmer(ed), Enzyklopädie Erziehungswissenschaft, 6th ed. Erziehung in früher Kindheit. Stuttgart. 21-38.

통신이야기

썩썩한 어린이집 용감한 선생님의 PC통신 입문기 정보찾기와 게시판 쓰기

이강선주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한동안은 비가 많이 오더니 이제는 정말 초여름 기운이 물씬나지요?

한번 PC통신에 발을 들여놓으면 한달에 몇만원에는 그냥 사라진답니다. 아직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시간은 바로 돈입니다. 바로 이 원칙을 미리 알지 못한 저 용감한 선생님은 용감하게도 한달에 5만원 가량을 날리며 누비고 다녔지요. 그러나! 주머니 경제가 나라 경제인 만큼,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지요.

지난달에 어린이집/놀이방정보까지 잘 들어갔다 오신 선생님들은 아마도 재미난 이야기들을 읽으시면서 한참을 즐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신선놀음에 도끼가 어쨌대나? 알뜰 그 즐거운 동안 전화요금만 팍팍오르고 있었지요. 그으-럼 게시판의 글들을 읽으면서도 시간을 줄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갈무리"입니다. 아니요.. 나훈아의 갈무리가 아니어요. 마이크 잡고 노래할 준비하시지 마시구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프로그램의 메뉴를 보시면, 메뉴는 F10을 누르시면 나타나지요? 그중에 서류철을 선택하시면 그 줄이 갈무리라고 나옵니다. 갈무리에 놓고 엔터를 치세요. 상자가 하나 나오지요? 화면갈무리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다시 상자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화면에 뜨는 내용이 저장이 되는 내용을 어디로 보낼까 하는 것입니다. C:\로 보내도 좋지만 저는 주로 B:\로 보냅니다. 상자 안의 커서가 반짝이는 곳에 이렇게 씌웁시다. B:\lsj.hwp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B드라이브의 lsj.hwp파일로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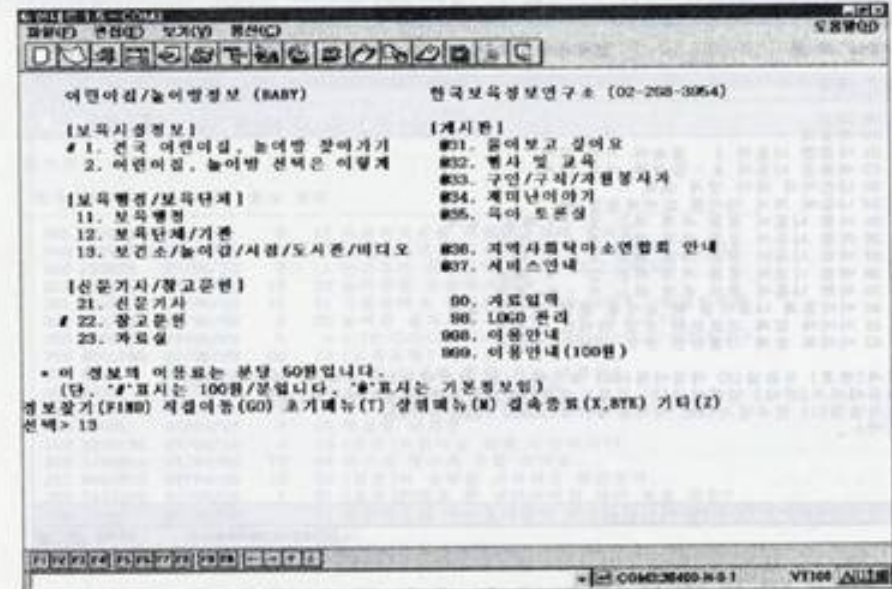
그럼 이제부터 읽고 싶은 글을 화면에 한번씩 나타나게 하세요.

갈무리를 그만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F10을 누르시고 서류철에서 다시 갈무리를 누르세요. 그럼 이제 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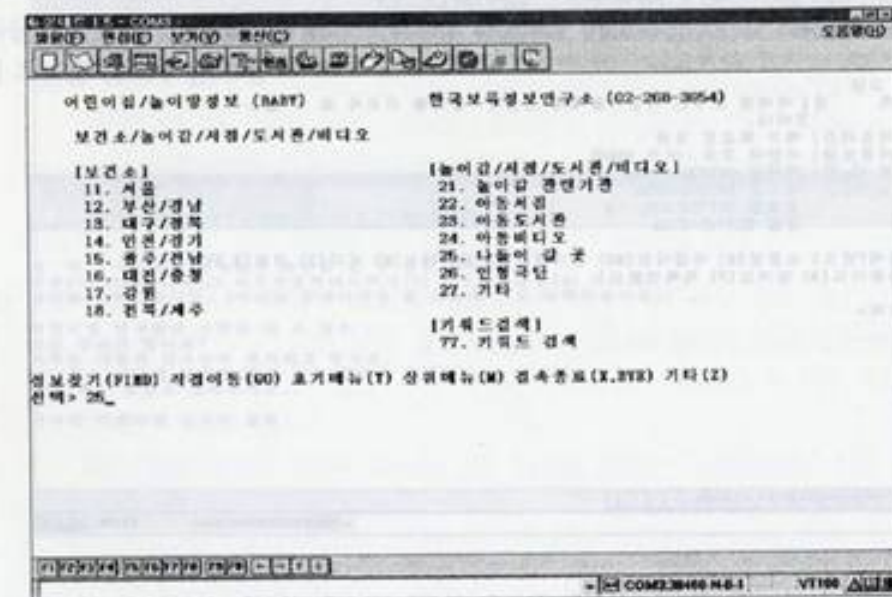
종료하시고 나오세요. 한글로 들어오셔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네모상자가 나옵니다. 한글문단을 선택하시고 다음 상자가 나오면 조합형을 선택하시면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료찾기를 한번 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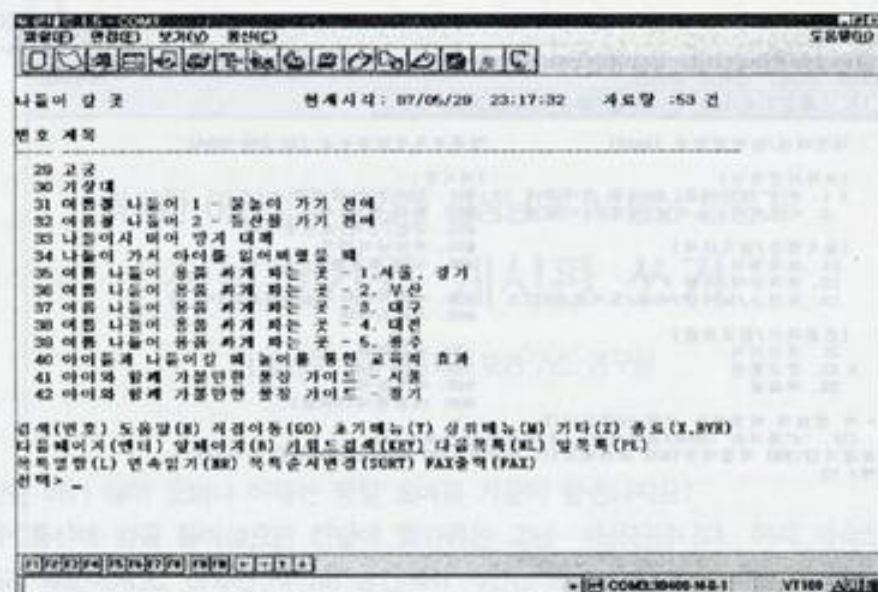
친구들과 봄소풍할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구요? 그렇다면 GO BABY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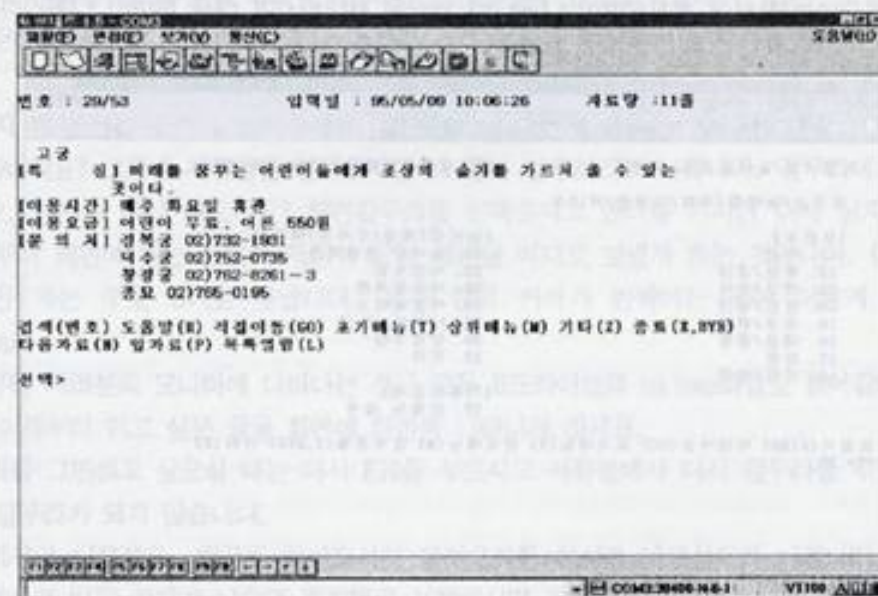
어린이집/놀이방정보의 초기화면이 나옵니다. 13번을 선택하시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25번 나들이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들이 할 장소가 나옵니다.



이번 불나들이는 고궁이 어떨까요? 고궁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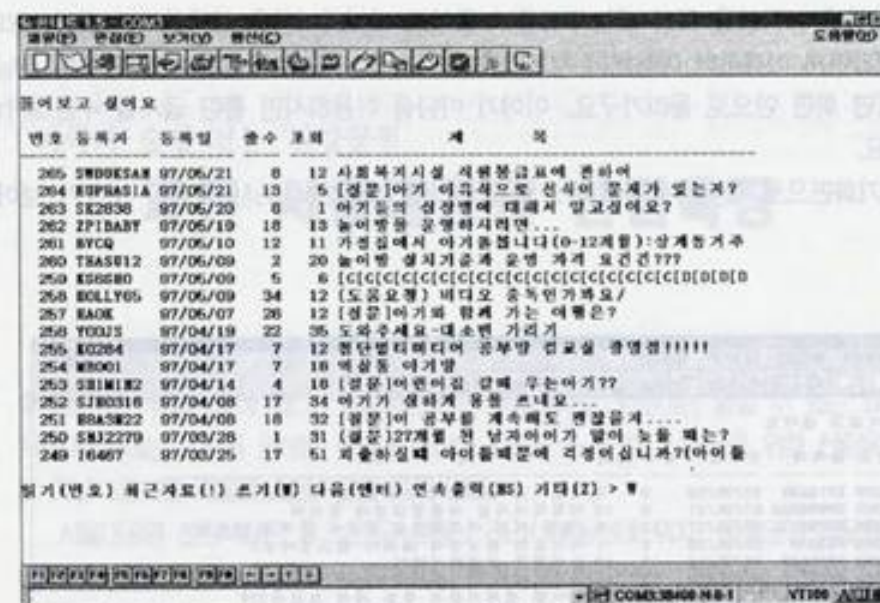


별로 마음에 드시는 곳이 없나요? PC통신은 쌍방통행이 가능한 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을 직접 찾아보는 것 말고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놀이방정보 초기화면에서 보시면(초기화면으로 가시려면 M을 누르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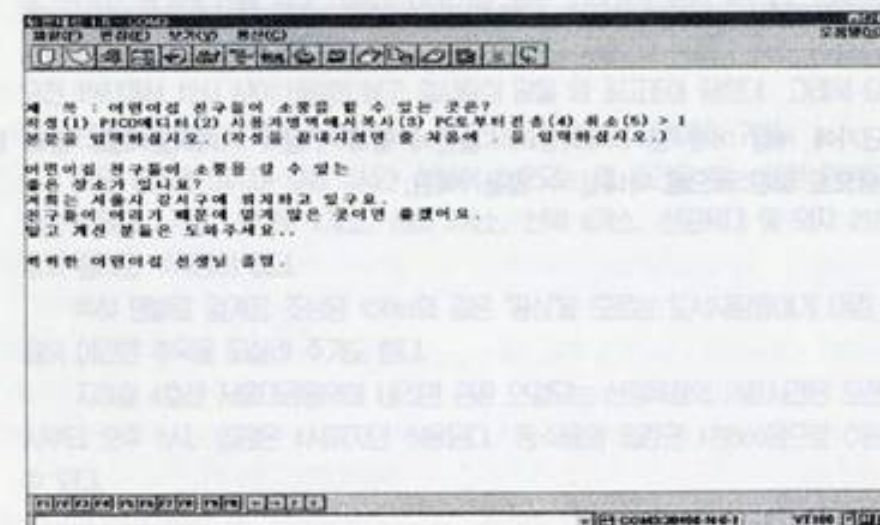
「31. 물어보고 싶어요」란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많은 분들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쓰고 싶으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쓰기 명령어는 W입니다.



W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제목을 쓰라고 나옵니다.

제목을 쓰시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작성하실 것인지를 묻습니다. 1번을 치시면 온라인 상태에서 직접 작성을 하시기 됩니다.



일·본·연·수·일·지

일본에서의 보육원연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경·남부 새터어린이집 교사

지난 5월17일 본회의 박천주·지연·이현경·박화명선생님이
‘한일보육교류회’초청으로 2개월간의 일본연수를 떠났습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참고 본월호 ‘소식과 소식’란)

5월17일,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탔다. 기내에서 나오는 점심도 먹고, 음악도 듣고, 비행기 날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사실은 나만 처음 타보는 거라 창가에 앉았는데 비행기 날개만 보이는 자리라 땅에는 뭐가 있는지 거의 못 봤다-유심히 보고, 구름과 하늘만 실컷 보았다. 게다가 고도가 달라질 때마다 귀가 아파서 혼났다.

오사카 관서공항에 도착하니, 일본측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를 마중나왔는데 작년에 새터어린이집에 2주간 연수오신 시마즈도모 요선생님도 오셨다. 시마즈선생님은 새터의 우리 아이들이 잘 있는지부터 물어보셨다.

도착해서부터 오늘까지, 여기서 지낸 열흘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여겨진다. 낯선 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긴장을 하기 때문일까?

5월19일에는 거리·지리를 익히느라 동네 구경을 했다. 5월20일부터 각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중 박화명선생님과 박찬주선생님은 지하철로 각 어린이집에 출퇴근을 해서 아침 8시에 숙소에서 나간다. 나와 지연선생님은 걸어서 20분 되는 곳에 어린이집이 있어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 일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애신보육원을 제외하곤 근무중간에 30분에서 1시간의 교사휴식시간이 있다.

각자가 보육원에서 지내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나와 지연선생님은 5시30분이고 그 다음이 박화명선생님, 마지막에는 박찬주선생님이 6시쯤이 된다. 김치뿐이지만 너무 행복한 저녁을 먹고 ‘오늘도 무사히’ 지냈는지 보육원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밤에는 주로 일어공부를 하거나 일지를 쓰고 1주에 1번씩은 생활총화와 일정을 의논하는 연수팀회의를 갖는다.

생활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넓은 방과 부엌, 화장실, 욕실이 따로 있고, 생활에 필

요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주셨다. 다만, 밥상이 없어서 불편을 겪었는데 오늘야 TV와 밥상이 생겼다.

여기 날씨는 생각보다 춥다. 맑다가도 비가 오고 바람이 차다. 오사카가 후덥지근하다 해서 모두들 얇은 옷만 들고 왔는데, 옷을 넉넉히 못가지고 온 것을 하루라도 화제에 안올릴 때가 없다. 다행히 애신보육원에 계신 선생님이 옷도 빌려주시고, 희망의 문 보육원에서 이불을 더 갖다주셨다. 환영회나 보육원에서 남은 음식도 싸주시고 가끔 과일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들 모두는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나온 때가 더 나올 듯하여 너무 고민임).

보육원에서 일주일의 생활은 적응하느라 힘이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문제였다. 만나는 사람과 손짓, 발짓,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Body Language 박사가 될거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이제 어느 정도 단어를 익혀서 하루일과에 따른 몇마디는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말은 간단한 말을 제외하곤 알아듣기 힘이 든다. 하루는 아이들이 고무찰흙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어서 옆에 갔더니 내게 “わにつくれ!(와니쪼꾸레), わにつくれ!(와니쪼꾸레)”한다. 내가 “わに?(와니)”하고 되묻자 아이는 “はい, わにつくれ(하이 와니 쪼꾸레)”하면서 재촉을 하고 나는 “わに(와니)”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 “ちもとまてくたあ(잠깐 기다려주세요)”를 먼저 해야했다. 아이는 기다려주지도 않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선생님이 무엇을 하시나 눈치를 보다가 “わに(와니)”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선생님은 악어모양을 손짓으로 해보이고, 나는 그제야 이해를 하고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더디지만 차분히 그리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즐겁게 적응하고 있다. 한국에 두고 온 어린이집 식구들과 아이들, 가족들을 오늘밤도 그리며, 내일 있을 희망의 문 보육원의 감자밭 소풍때 내 머리만한 감자를 캐 각오를 다진다.

취학전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 백지화

정부와 신한국당은 27일 전국민의 평생교육권 보장과 영재교육 실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대학 자체 평가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안병영 교육부장관·함종한 신한국당 제3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기본법 제정안은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명문화했으며 각급 학교로 하여금 인성교육등 전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단체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영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며 찬조금 형식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허용하되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검토됐던 취학전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은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고등교육법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대학 자체의 대학평가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대학과 전문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가 부여된다.

(중앙일보 5월28일자)

좋은 그림책 소개

아프리카여, 안녕!

한스 A. 레이 글, 그림/이선아 옮김/시공사/55쪽/6,000원



“이 업소이 이글은 조지란다.”

이 꼬마 영_영이는 착하기도 한데 호기심이 너무 많아.”

5월은 화려하면서도 힘이 들고, 힘이 들면서도 즐거움이 많은 그런 달이다.

올 5월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보육교사로서 맞이한 두번째 5월이다. 계획한 일도 많고 그런 반면 실천하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실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지쳐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림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속된 말로 평잡은 거다(?). 아니, 쥐구멍에 별든거다(?), 그것도 아니면 가뭄에 내린 소나기(?). 그게, 아무튼 황재였다.

서두가 너무 길어졌다.

[아프리카여, 안녕!]이라는 이 그림책의 주인공인 꼬마원숭이 조지는 우리 아이들과 같다. 착하지만 호기심이 너무 많은 꼬마원숭이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다가 노란모자를 쓴 아저씨를 만나서 아프리카를 떠나 대도시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이다.

이 그림책의 최대장점은 글이 없어도 책장만 넘기면 이야기가 줄줄줄 풀려나가는 선명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금 비약하자면 글을 읽으면 오히려 지루할 지경이다.

그리고 주인공 꼬마원숭이 조지의 성격(착하기는 한데 호기심이 너무 많아 원문 중에서-)이 아이들에게는 시원한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다시 한번 아이들의 세계를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거기다가 이 재미있는 그림책이 [아프리카여 안녕!] 외에도 시리즈로 3권이나 더 있다는 사실!
 <개구쟁이 꼬마원숭이②-신나는 페인트칠, 개구쟁이 꼬마원숭이③-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개구쟁이 꼬마원숭이④-벌원소동>

2권까지 본 우리 도담 아이들은 4권이냐 된다는 이 기쁜 소식에 가슴 졸이며 3탄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엄마·아빠들, 꼭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 보여주세요!

(소개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교사 김수중)



교사의 의견

승급교육을 다녀와서

고영미 · 안산 진달래동산 교사

지탁연 식구들과 인연을 맺은지 5년이 넘었다. 양성교육을 받고 3년이 넘어서 4월21일부터 5 일간의 일정으로 용인 강남대 평생교육원에서 1급 승급교육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꼭 승급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가정복지과 직원의 말을 듣고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강남대로 향했다. 지역에서 경 력이 3년이 넘는 교사들과 긴밀한 만남도 가질 수 있는 모처럼만의 중요한 기회라 기대도 많았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승급교육의 내용이 부실했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실망이 더 컸다. 앞 으로는 내실있는 승급교육이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장소, 시간, 거리의 문제

교육대상자 전원이 현직교사임을 감안했다면 지역내에서 가까운 기관에서 교육이 이뤄져야하 는데 양성교육기관이 있는 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지다보니 거리가 너무 멀어(약2-3시간) 피곤하기 도 하지만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경기도내에서 근무하는 승급교육 대상자를 1월부터 4월까 지 용인 한곳에 모두 모아 교육을 한다는 건 너무 무리한 행정이 아닐까?

안산시청에서는 신청자가 60명이 넘으면 강남대에서 출장교육을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신청 자가 60명이 안되어 용인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상반기에 한번을 하더라도 안 산, 안양, 수원, 시흥을 묶어서 교육을 했다면 충분했으리라 보이며, 교사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어 승급대상자 파악만 제대로 되고 있어도 얼마든지 시에서의 교육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진 다.

비용의 문제

대부분 교육에 참가했던 교사들에 대한-시립이건 민간이건-교육비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다(교육비 77,000원). 여러가지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10만이라는 돈이 드는데 전혀 지원없이 전 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건 여러가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10만원이 적당하다. 너무 많다는 차원 을 떠나 보건복지부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재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작년 보수교육의 경우 시에

서 주관했을 때에는 시에서 지원했던 경험에 있는데 이번 승급교육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면서 지원 이 전혀 되지않은 것은 보육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이 또 한 정비가 되어야 하리라 본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승급교육은 현장교사 3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양성교육이나 여타의 보수 교육보다는 내용면에서 질적 차별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내용이 많이 부족했다.

교육기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교육기관도 마찬가지 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미술교육시간이었는데 '라스그림'을 보여주며 신기한 듯 설명하더니 "아세요?"라고 반문 하는데 할 말이 없었고, 1980년에 발표된 논문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에 옛이야기('옛날과 오늘') 에는 환타지가 부족하고 외국의 옛이야기에는 요정이나 괴물들 같은 환타지의 세계가 많이 등장해 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북돋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은근히 화까지 치밀었다(동화 및 언어지도).

연구 및 자기개발이나 신간 논문도 안보는, 자기문화에 대한 주제성도 희박한 교수한테서 무 엇을 배울 것인가?. 또한 신간 그림책이라며 소개하는 것이 '우리네 아이들'에서 2년전 소개한 '내 표범 팬티 어디갔어?' 시리즈였다면 이해가 충분히 갈 것이다. 이론교육도 마찬가지였다. 최 근 발표되고 연구되는 여러가지 이론이나 학설에 대한 소개도 없었고 특이할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유치원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육과 교수들로만 감사진이 이루어져서 보육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욱 감사진으로 많이 나서야겠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

너무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필요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뻛고 일상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교육을 받으며 지나간 3년(양성교육 이후)동안의 교사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 가 되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승급교육을 받을 때에는 교육기관의 선택이 중요하므로 신중을 기 하라는 당부의 말과 여러 교사들과의 뜻깊은 만남의 자리이므로 잘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 전한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지탁연 식구들, 아이들과 건강하게 보내시길...

▼▼▼▼▼
현장교육(1)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장정희 · 수원 용기종기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란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

좋은 보육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출생부터 키워야 하는 주체인 보육교사의 스
트레스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는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고 풀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
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교사는 지쳤다. 왜? 피곤하니까...

그럼 왜 피곤할까?

외부적인 요인-부모, 교사관계, 아동, 경제·사회적
위치 등

내부적인 요인-적성, 자질, 건강 등

1. 내부적 요인

○적성과 자질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적성, 즉 자신에게 맞는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일단 아이들을 좋아해
야 하고, 종일 프로그램이므로 그에 따른 다양한 성취목표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간혹 교사들이
아이들과 있는 것에 대한 무료함(?)이나, 생활 자체를 못 견디어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성격이 있는데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
도 있고 아이와 같이 또는 아이를 좋아하는 하지만 아이에게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들 특히,
대화가 되지 않는 영아와 하루종일 생활한다는 것은 보통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교사는 아이가 울면 아무 일도 안된다는 아이들의 우는 것을 못 참아하는 경우도 있다.

대안 : 적성은 선천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새롭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후천적 노력도 필요하다. 막연하게 이 일이 맞는다 안맞는다는 판단내리기 전에
타교사와 적극적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3-5년 이상의 경력교사는 사정이 된다면 유급이든 무급이든 안식달, 혹은 안식년
을 드물게지만 가져보는 것도 좋다. 아이들 교육관련 재교육프로그램이나 모임을 가거
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건강

교사의 직업병(견갑증, 어깨 결림, 만성피로 등)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다. 건강을 자신이 우
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며, 서로의 건강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외부적 요인

○교사관계

종일 지정된 공간에 많은 아동과 먹고, 자고, 치우며 생활한다는 건 많은 노력과 이해가 요구
된다. 간혹 교사들간의 다툼으로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동관, 즉 아이체벌,
허용문제, 밥먹일 때, 장난감 치울 때 등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
지 않을때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신진교사의 경우는 경력교사와의 생활에서 자기 자리를 찾
지 못하는데서 오는 소외감도 있을 수 있다. 그와 반대로 경력교사의 경우는 많은 일에 대한 부담
감과 책임감으로 교사간 역할 배분이 안될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외 잦은 지각, 무단결
근, 외출, 낮잠 장기화 등도 있을 수 있겠다.

① 친구를 깨물었을 때 : "무는거 아니야, 물지마" 또는 손을 꼭 깨물어주거나 입을 한대 툭치면서
"무는거 아니야, 물면 친구 아파, 미안해 해줘"

② 밥을 먹을때 : "밥을 남기면 어떻게,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지"하면서 억지로 먹인다. 또는 "밥
먹기 싫어? 그럼 그만 먹어"하면서 밥을 치울 때

③ 장난감을 치울 때 : "애들아 장난감 치우자. 장난감 너희들이 갖고 놀았으니 너희들이 모두 치
워야 해" 또는 "애들아 장난감 치우자, 이종에서 너희들은 코코콜라만 치워볼래"하면서 나머지
장난감은 교사가 치울때, 또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말도 없이 교사가 혼자 알아서 치울 때...

아니! 교사들 생각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대안 : 우선 자기역할을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점검, 수행해야 하며 교사회의를 통해서 계획·점
검·수정·실천활동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대화
와 두터운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술자리와 같은 시간의 모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모와의 관계

보육목표와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예전의 자모회나 부모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아이가 다쳤을 때 '애봐준 공은 없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아픔도 있고, 부모가 지정된 보육시간을 안지켰을 때 오는 스트레스도 가끔씩 발생한다.
그외 지나친 교육요구나 어린이집 행사 불참시도 스트레스가 팍팍 쌓인다.

① 아이가 다쳤을 때 : 두돌이 되지 않은 남자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귀를 부
딛히면서 귀가 찢어졌다. 즉시 부모님께 연락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세바늘을 꿰매야만 했다.
교사들은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제는 죽었다 싶어 어쩔줄 몰라하는데 의외로 부모님의 반응은
"놀다보면 다칠 수도 있죠. 우리애가 워낙 극성 맞아서 선생님들 놀라셨겠어요" 하신다. 너무
고마웠고 보람을 느낀다.

반면 4살된 남자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남자 친구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서 조금 심한 상처가 생겼다. 저녁에 어린이집에 오신 아빠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런데 아빠는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고 언짢은 표정으로 아이만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저녁에 엄마가 물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아빠는 아이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 엄마 탓이라면서 집에서 애나 잘보지 뭐하러 다니느냐며 다투었다고 하시며 속상해 하셨다. 다음날 병원에 데려가 주길 원해서 갔다와야만 했다. 엄마 말씀이 "아빠가 애 얼굴에 상처 나는 것을 못참아하셔요. 아이들이 놀다보면 다칠수도 있는데 어제는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다시 풀려났다. 그후에도 그 애는 자주 얼굴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젠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이해하신 듯하다.

② 보육시간을 자꾸만 어길 때 : 7시30분, 이제 퇴근해야만 하는데 오늘도 안오시는군. 7시40분 자꾸 시계만 보면서 화를 삭히고 있다. 아이는 자기가 혼자 남아있는 것을 알거나 한 듯 자꾸만 보채면서 나가자고 한다. 육 너까지 왜 그래...

7시50분 전화벨이 울린다. "죄송해요. 지금 빨리 갈게요" 오늘도 여지없이 늦게 오신단다. 어쩌다 한번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늦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엄마의 경우에는 사흘이 멀다하고 10분~30분씩 늦게 아이를 찾으러 오신다. 몇번씩 늦지말라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더욱 화가 나는 경우는 황금같은 토요일이다.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하는 데 매번 30분~1시간을 늦게 오신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이 엄마는 쇼핑을 하다가 늦게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육!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

대안 : 기본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하고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문제를 그 때 그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관성을 갖기 위해 교사회의에서 논의한 후 책임교사가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경제적·사회적 위치

경력이나 전공, 교육이수의 노력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년이상을 내다보며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다. 경제적인 면은 일하는 노동에 비해 박봉이다 보니 현실적 어려움으로 학원이나 그외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는 무엇보다 허다하다.

대안 : 보육사업의 공보육화와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참으로 다양하다.

-그때 그때 지적해 주면서 얘기로 푼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괜히 혼자서 청소나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푼다.

-아무것도 든 다치는 대로 먹으면서 풀어버린다.

-혼자서 속으로 삭혀버린다.

-교사들과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서 풀어버린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나요?

현장교육(2)

교사재교육 소모임을 마치고

· 교육부 ·

작년 11월에 시작하여 5월에 이르기까지 장장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교사재교육 소모임이 5월16일자로 일차 끝을 맺었다. 14차까지 진행되었던 모임은 후반부로 갈수록 교사들의 열의가 높아졌고 연구일기의 내용이나 토론의 질이 높아졌다. 막바지에 가서는 2주에 한번 했던 모임을 1주에 한번씩 진행할 정도였다. 그 때문에 모임의 성원들 모두 고생은 했지만 누구보다도 모임을 지도해주시느라 매번 천안에서 올라오시는 윤선영선생님과 부산에서 한번도 빠짐없이 올라오셨던 박찬주선생님의 노고가 크셨다. 특히 부산 아가자람터 어린이집 교사들은 모임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교사들이 같이 관찰일기를 쓰고 일주일에 몇번씩 교사회의를 하는 등 모임에 참여하는 교사들 못지 않은 열의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많은 재교육강좌가 있었지만 주로 그 내용이 새로운 이론의 소개나 실기강습 위주였다면 이번 재교육은 교사들이 어린이집 일상에서 겪는 여러가지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정리하는 자리였다. 교사들이 스스로 정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초기적응, 식사지도, 체벌, 낮잠, 부모협력작업, 부모오리엔테이션 등 교사들이 어린이집 일과 속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갑갑함을 반영하는 주제가 많았다. 그동안 이러한 어려움과 갑갑함을 토로하는데 머물렀다면 이번 모임을 통해서 교사들이 자기관찰과 아동관찰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견해를 반성해보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자기훈련의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모임에 참여한 교사 중 한분은 모임의 준비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2주 내내 다음 모임을 기대했노라고 하면서 이 모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임을 통해 교사로서 일하는 보람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며, 이러한 재교육 방식이 하나의 모델로 자리잡아 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그동안 모임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도 많고 특히 영아를 맡고 있는 교사들의 경우 영아보육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문제를 따로 다루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 기존의 모임은 일단락 짓되 영아교사를 중심으로 몇차례의 후속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그간 이 모임에 참여하지는 못해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많은 교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며 후속모임을 기대해본다.

현장소식

지역에서 펼친 어린이날 행사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에서의 건강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지탁원 소속 지역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아이, 교사, 부모, 지역주민들과의 한판 신바람나게 보낸 어린이날 행사를 되돌아본다.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이에요

김진숙 · 남부 새터어린이집 교사

5월5일.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다. 전날 밤까지 찜뽀렷던 하늘이 맑기만 하다. 버스를 타고 가로공원으로 행하면서도 '아이들이 많이 올까?'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길이 따라간다. 가로공원에 도착. 아직 준비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쓸쓸하다. 가로공원을 한바퀴 돌아본다. 구로도서관 입구쪽에서 준비물을 챙겨오느라 일찍 온 윤희언니를 만난다. 그리고 그 옆으로 구로동에서 왔던 아이들이잖아!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까? 네명의 친구들이 정류장에 모여있길래

이른 시간부터 어디에 가는 걸까? 하며 지나쳐 왔는데 바로 여기에 왔다니! 난 '2시간 전부터 와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구요'라며 하루종일 떠돌고 다녔다.

본부석이 세워지고 엠프가 설치되고 풍선이 매달리고 작품이 전시되고 만국기가 걸리고... 각 마당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하나둘 몰려온다. 풍물패의 길놀이가 시작된다. 드디어 '제1회 구로 어린이 큰잔치'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행사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와글바글 했으니까. 오히려 준비물품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딱지치기, 널뛰기, 큰줄넘기, 굴렁쇠 굴리기 등 전래놀이 중심으로 짜여진 신나는 놀이마당. 굴렁쇠를 굴리기에는 비좁은 듯 하지만, 널뛰기를 마음껏 하기에는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지만,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함박꽃이 활짝 피어있다. 취학전 어린이를 위한 유아마당. 타이어에 판을 대고 바퀴를 단 '달리는 타이어'는 준비한 사람들의 정성이 돋보인다. 유아들의 인기는 단연코 말타기다. 동네 할아버지에게 하루 빌린 말수레. 어릴적 골목에서 '산토끼 토끼야...' 노래가 흘러나오면 달려나가 100원을 주고 타던 말, 그리고 정겨운 할아버지.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든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땡땡 뽕파롱' 어디선가 장구소리가 들린다. 시원한 나무그늘 밑에 정자가 있고 정자 아래 아이들이 장구를 하나씩 들고 있다. 가락을 따라하며 손에 익지 않은 채를 든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그 옆에서 우리가락에 맞추어 탈춤을 배우고 전래동요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 뜨거운 햇빛에

도 아랑곳 않고 한삼자락을 드리우고는 땡땡실 춤을 춘다. 우리 문화를 맛본 김에 옛날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가보자. 비록 몇가지 안되지만 땡돌을 돌리고 다듬이 방망이를 두들기고 새끼를 꼬고 있다. 땡돌로 갈은 녹두로 전을 해먹고 꼬은 새끼로 줄넘기와 줄다리기를 하면 좋으련만. 내 어릴적만 해도 다듬이들은 집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이제는 옛날물건이라고 전시해 놓고 사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물건을 구하기 위해 시골집으로 뛰어다녀야 하다니. 어쨌든 결론은 아이들이 우리의 것을 너무나 좋아하더라.

누가 여기까지 와서 제기차기, 딱지치기, 비석치기를 할까? 신나게 놀거리가 많은데 누가 전래동요를 배우고 풍물을 배울까? 누구는 누구. 바로 어린이들이지.

길목 여기저기에는 아이들의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글이 전시되어 있고 구로구의 역사와 문화가 전시되어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학교 수업도 진행되어 호응이 높았는데 조금 극성스러운 부모들 때문에 홍보자료가 금새 바닥 났다.

도서마당에는 자녀가 있는 보육교사들이 좋은 책 전시와 상담, 판매를 하고 있다. 영아부터 초등학교생까지 볼 수 있는 책과 어른들을 위한 책까지 준비되었다. 그 옆에는 아버지께 편지쓰는 곳이다(아버지이기도 한 집행위원장이 강력히 주장한). 준비한 엽서가 점심시간이 지나고 바로 떨어졌다는 후문. 며칠 후 엽서를 받은 아버지들이 기뻐할 모습을 떠올려 본다.

어린이날. 이처럼 밝게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어린이들이 있다. 북한의 어린이들. 청소년 단체인 '샘', '푸른 벼'에서 삼은 감자와 모

금함을 놓고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을 하고 있다. 엄마, 아빠의 손을 끌고 와 감자 한 개를 손에 들고 동전 하나를 집어넣는 고운 손길이 고맙다. 100원이면 북한 어린이 한명이 하루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까? 이왕 꺼낸 김에 한마디 더하면 '구로 어린이 큰잔치'를 마치고 남은 돈을 북한 수해 지원금으로 한다는 말씀.

맨 끝으로 가면(입구가 6곳이라서 끝이라 할 수 없지만 본부석과 가장 먼) 미술마당이 펼쳐져 있다. 손에 흙 묻히는 게 뭐가 그리 좋은지 아빠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찰흙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다. 호랑이, 토끼를 등에 업은 거북이, 과일 바구니, 탈 등 어린이들의 손재주가 대단하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순수하다. 더럽다는 개념도 몰리다. 손에 흙 뿐만 아니라 물감도 한바닥 묻히고 손바닥 찍기를 한다. 곱게 찍은 손바닥을 가져가기도 하고 큰 그림판 가득히 손자국을 남기기도 한다. 얼굴에는 나비, 꽃, 호랑이, 토끼 등을 새겨놓고 다닌다. 얼굴분장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는데 에피소드 하나. 볼에 나비를 예쁘게 그린 한 아이. 그 아이가 울려고 하자 '울면 나비 지워지잖아'하니까 눈물이 속 들어갔다.

우유곽으로 만든 미로를 찾아나오니 휴 - 한바퀴 돌기도 힘이 든다. 출출한 배를 채우라고 마련한 장터마당. 떡볶이, 김밥, 아이스크림... 먹을거리가 푸짐하다.

참, 인형극장에도 들러야지. 2회뿐이지만 한 번에 구연동화, 손가락 동화, 인형극 세가지를 볼 수 있는 알찬 공연이다.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을 뿐인데도 아이들의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라있다.

아침부터 온 아이들이 돌아갈 줄을 모



← 무슨 노래 부를거니?
응음- 무슨 노래 부를거니만요.

른다. 왜냐하면 작은 마라톤대회와 동요부르기대회가 있기 때문. 작은 마라톤대회는 뛰고 싶은 아이들이 다 뛰면 좋았을텐데 번호판의 관계로 200명밖에 참가를 못했다. 학년별로 달렸는데 가장 예쁜 모습은 역시 유치반에서 1,2학년 아이들. 이 팀에서 팔찌한 아이는 시상식에서도 시상이 모두 끝난 다음에 올라와 더 큰 박수를 받았다. 나중에 들어보니 6살인 아이는 너무나 열심히 참가해서(진짜 열심히 그 자체) 교통정리 해주시던 경찰아저씨들도 응원을 해주었다. 팔찌에게 희망을!

큰잔치의 마무리행사는 동요부르기 대회. 대회여서일까? 아니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일까? 그도 아니면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해서일까? 신청자가 너무나 많아 25팀만 받았다. 그래서 늦게 접수하러 온 사람들에게 애원과 따집을 받았지만. 최연소자는 '섬집아기'를 부른 4살인 여자아이.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아이는 6살인 남자아이. '개구리 소년'을 불렀는데 '일-어나라-----'(8박자)'를 열창했다. 아이들이 어쩔 그렇게 쭉뚝거리지도 않고 씩씩하고 예쁘게 잘 하는지. 자신감이 넘쳐흐른다.

시상식을 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대회형식이 아닌 '부르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배놓을 수 없는 것 하나. 사회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글쓴이라는 것. 비록 사회를 해주기로 한 분이 못오셔서 땀방으로 한 거였지만 큰잔치로 인해 가장 톤 사람이라는 뭇소문도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강강술래와 박 터뜨리기.

이렇게 처음으로 열린 어린이날 행사인 '구로 어린이 큰잔치'를 해냈다.

함께 한 자화들이랑 뒤편이를 하면서 큰잔치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 해주었더니 한 자화들이 '대단해요'라며 감격스러워한다. 사실 대단했다. 5개의 민간사회단체 주최에 350만원의 구청행사 지원금, 200여명의 진행요원에 3000명의 어린이, 부모들의 참가. 행사참가표가 모자라 복사를 해오고 가로공원을 꽉 메운 사람들과 참가표 가득히 동그라미를 받아오는 아이들을 보며 마냥 즐겁고 같이 들떠 있었다.

3월 월례회 때 어린이날행사를 하기로 결정한 뒤 먼저 어린이날 잔치를 하자고

→ '영차 영차. 언니 빨리 끌어줘' →



물꼬를 띄웠던 서울여성노동자회와 연락하여 참가단체들을 꾸려 모임을 시작한 것이 3월말이다. 한달동안의 준비기간이 짧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구로구의 어린이들에게 하루 만이라도 맑고, 밝고, 씩씩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5개의 단체(서울남부지역보육교사회, 서울여성노동자회, 구로청년회, 서울진보청년회, 구로지역선타준비위)가 하나가 되었다.

우선 가장 큰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구로구청의 사회단체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업계획도 그에 맞추어 최대한 거대한 규모로 세웠다. '구청용이야'하며 구로지역 역사알기도 넣고 환경생태마당도 넣고, 역량상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마당을 계획했다. 욕심탓인지 성실한 탓인지 결국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우리 참 대단해'라고 평가하고 있다.

6명의 집행위원이 꾸려지고 그 안에서 역할을 나누어 포스터와 전단을 만들고, 현수막을 걸고, 후원금을 모으고, 구청장을 만나고, 마당 준비하고. 마당은 단체마다 2, 3개씩 맡았다. 보육교사회는 미술마당, 춤

과 노래마당, 도서마당과 행사장 입구장식을, 어머니 인형극단이 있는 여노에서는 동화마당을, 역사교실을 해마다 하고 있는 구로청년회는 역사문화마당을 맡는 등 연관된 마당을 담당하였고, 종물배우기, 길놀이, 엽서쓰기 등은 지역의 관련단체에 협조를 부탁했다.

각 단체의 사정이 이 행사에만 전념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정이었다. 후원금도 거의 안들어오고 구청 지원금은 나올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고, 열흘전까지 준비금이라고는 단체에서 낸 것밖에 없어 매일 점검을 하면서도 사실 힘 빠져 있었다. 집행위에서는 행사규모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 마당 준비자들에게 '예산을 다시 짜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일주일전 구청지원금이 확정되었다. 신청금보다는 적은 액수였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350만원(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았대요). 그리고 100여만원의 후원금. 언제쯤 돈걱정 안하고 살 날이 올런지.

한달동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 끝에,

5월 5일, '제1회 구로어린이큰잔치'가 열린 것이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았던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어린이문화를 뿌리내리고, 환경의식과 창의성을 기르고,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실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문제점들도 많았다. 진행요원의 사전교육을 못한 것, 대회형식을 취한 것, 물품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점 등. '처음'이라는 이유로 덮어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깐.

다행히 하늘이 허락한 날답게 날이 맑았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푸른 하늘 아래서 즐겁게 하루를 지냈고 내년에도 하기를 바라고 있고, 진행한 사람들도 어린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땅의 모든 어린이와 부모들을 대신해서 전해야겠다.

참가단체회원들, 후원하신 분들,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분들(남미영 회장님도 그중 한분), 또 구로구청에도 감사를 드린다.

참, 베풀을 수 없는 각 어린이집의 자원활동가들에게도. 이모, 삼촌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진짜 없으면 안될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남부지역 보육교사회 회원들. 수고했다는 말보다 더한 것을 주어야 할텐데. 아마 보육교사회가 나서지 않았으면 어린이 큰잔치라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린이날이 매일처럼,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일년내내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란다.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어린이

윤금주 · 수원 용기종기어린이집 교사

'97 수원 어린이 한마당이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어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에서 5월5일 열렸습니다.

여는 마당, 어우러지는 마당, 닫는 마당으로 나누어 준비한 행사에는 천여명이 넘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동참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는 마당에서의 기념식을 시작으로 어우러지는 마당의 놀이마당은 초등과 유아로 나누어 초등놀이 마당은 전교조 수원지회가 준비와 진행을 맡고 유아놀이 마당은 수원보육교사회인 우리가 준비를 맡았습니다.

처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교사들이 얘기를 해줘도 경험이 없는 저로써는 하는 일 없이 고민만 했고 올망졸망 전경숙선생님이 혼자서 회의에 참석하라, 행사 준비하라 분주하게 지내셨습니다.

유아놀이 마당에서는 자전거 타기도 하고 비닐터널 통과랑 비눗방울놀이 달구지 타기 등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걸 "페이스 페인팅" 끊임 없이 늘어선 줄은 이주영선생님과 자활이 모를 행사 종료전까지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고 끝내는 줄을 좀 잘라 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게끔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

이 오리라곤 생각지 못해 목에 걸어주려고 준비한 사탕목걸이는 '마파람에 게는 감추듯이' 순식간에 사라져 표시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준비과정이 좀 미흡하긴 했지만 아이들은 그 넓은 초록의 공간에서 마냥 부신 웃음을 머금고 오월의 나무처럼 생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연마당은 수원YMCA가 주채한 초록동요대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고 여성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그림자 인형극 "요술부채"는 앉을 자리가 부족해 배곡한 공간에 서서 보는데도 되돌아 나올 정도로 2회 공연 모두 호응이 좋았고 슬라이드 상영 및 수화공연 '인어공주'가 아이들의 동심속에 꿈을 새겨주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시마당에서는 어린이 작품 종이접기 전시와 감작, 환경 관련 사진전이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장터마당에서는 수원여성회가 주체가 되어 북한 어린이를 위한 하루체험, 옥수수 죽 함께 먹기와 김밥, 어묵, 감자, 떡볶기 등 북한동포 돕기 먹거리수익 사업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인원들로 음식은 곧 동이 났고 먹을 사람은 많은데 음식이 모자라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닫는 마당에서는 박 터뜨리기, 소원 접어 날려보내기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아쉬운 점이라면 계획했던 놀이가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진행되어지지 못했던 것과 짜임새 있는 진행이라기 보다는 너무 여유로운 진행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해보며 다음 98년 행사때는 좀더 많은 어린이들과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며 그에 맞춰 신선하고 재미난 놀이활동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짜임새 있는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어 아이들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후- 세게 불어봐-" 비눗방울이 멀리멀리 저 북녘까지 갈 수는 없을까?



현장소식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5월15일 인천보육교사회는 '제2회 스승의 날 자축연과 신임교사 인준식'을 가졌다. 이날 인천보육교사들은 서로에 대한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았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아래는 당일 행사와 관련된 교사들의 글을 모은 것이다.

인천보육교사회 자축연을 마치고

신현경 · 인천 서로사랑어린이집 교사

아침부터 아이들은 작은 손에 꽃 한 송이와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씩씩한 목소리로 "선!생!님!"을 부른다. 아침내내 인사 받고 인사하기 바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마지막 남은 아이를 엄마손에 보내고 새로 들어온 선생님들과 수다를 떠다. 선생님은 여러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만나는 말에 "치마를 입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그 모습에

나도 당당히 흥분이 되었다.

모임장소인 예술어린이집은 우리 어린이집에서 버스를 타고 5분 가량 된다. 도착하니 벌써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고 10분쯤 지났을까 자모님, 갓 결혼한 선생님 두 분의 신랑들,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물론 내가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나의 신랑은 오지 않았으므로 부러운 눈길을 줄 수밖에....

사회를 보시는 고정미 선생님의 고의적인 기억상실로 편지글이었던 '보육교사를 뒤돌아보며'를 원본없이 이순 선생님의 육성을 듣게 되었다. 말씀 도중에 눈시울을 붉히며, 참된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애썼던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며 목소리가 끊길 때, 선생님과 함께 고민의 무게를 지지는 않았지만 그 삶의 살아있는 흔적이 가슴 깊이 느껴져 왔다. 진정으로 축하받아야 할 분은 바로 이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온 분들인 것 같다.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 그 것이 생명을 가꾸는 일일 때는 더욱 어렵고 기쁜 일인 것이다.

다음으로 신임교사 인준과 수료식이 있었다. 7명의 의욕에 넘치는 선생님들이 신진교사 교육을 마치고 힘찬 모습으로 수료증과 선물,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재작년 내가 신진교사 교육을 받을 때는 저런 선물도 없었는데... 억울해라...

1부 순서를 마치고 각집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뷔페를 차려놓고 먹기 시작했다. 한번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자 놀려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선생님들, 자리를 옮기려 했던 정미선생님 얼굴의 찌그러짐,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놓칠 수 없다는 사생결단의 무서운 여자들 앞에서 결국은 이동을 포기했다. 여행소모임, 그림책 소모임, 매너리품물팀, 우리교육 정리팀이 준비한 장기를 보며 실컷 웃고 떠들며 쌓였던 피로를 풀었다.



← "선생님,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승의날.

참된 스승을 만나기 힘든 세대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지탁연을 만나게 되었고 벌써 2년이 지났다. 지탁연은 아이들에게 비추어진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밝은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징검다리에 흡수되어 나 또한 아이들이 밝고 지나가기에 충분히 편한 넉넉한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순 · 인천 예술어린이집 교사

스승의 날 자축연 두번째를 맞으며...

이렇게 자기 생일도 찾아먹을 수 있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보육을 하게 된지가 만 6년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많은 일

들이 스쳐가는군요.

오직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곳만 있다면 그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그런 곳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 하나로 시작해서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들어놓고 보니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고, 소박한 꿈과는 달리 돈이 없는 것이 큰 장벽이었고, 현것을 얻어다 쓰다보니 매일 고쳐야 했고, 적자에 시달리며 수익사업도 해야했고, 선생님들은 하는 일이 많아서 늘 힘에 부쳐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었고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왔지요.

어린이집선생님들 못 좀 잘 입었으면 좋겠다. 화장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보다 나은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외길을 달려온 시간들이 었지요.

우리 선생님들 때론 이 일을 해야 하나, 다른 일 하면 이보다 못하랴, 굳이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빨리 결혼하면서 그만두

자, 허리 아픈데 그만두자. 쉬고 싶어, 떠나고 싶어...

수없이 고비고비를 넘기며 이런 갈등 속에서도 선생님들을 붙들고 싶은 것은,

만세를 부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평화스럽게 잠자고 있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며,

박꽃처럼 순박한 고운 아기,

때로는 악동이, 개구장이처럼 천진스런 우리아이들을 보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주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늘 함께 해온 자모들이 있었고, 그속에서 우리는 공동운영, 공동체교육을 외치며 지역사회의 밝은 앞날을 볼 수 있었지요.

이렇게 스승의 날 새로운 얼굴들과 오래된 얼굴들이 많이 모여서 자축연을 하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이제는 결혼을 핑계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도 다시 이 일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뭉클함과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또 좋은 어린이집들이 우뚝 서있고, 그동안의 고생이, 고생이 아니라 밑거름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선생님들 정말 수고했어요.

더욱더 좋은 어린이집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힘차게 나아갑시다.

선생님들 사랑해요

인천보육교사회 새내기 선생님들 지켜봐주세요!!

안경아 · 인천 새싹들의 방 교사

내가 있는 새싹방과 인연을 맺은 지난 1992년 4월.

인천대학교에 다니던 나는 마음에 맞는 봉사동아리를 찾지 못해서 해매고 있었고 그때 마침 아는 선배가 새싹방을 소개시켜 줬고 그게 인연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됐다. 졸업할 무렵 새싹방 선생님께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셨을때 "그래 바로 이 일이야"라는 생각은 크게 하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걸 간접체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다. 그러나 힘들지만 소중한 일이기엔 또 새싹방의 아이들이 있었기에 새싹방에 몸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인천보육교사회와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신진교사교육을 받게 되었다. 사실 처음엔 너무나 건방지게도 신진교사교육을 통과의례로 생각했다. 첫째 날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만난 선생님들과 서먹하지만 친숙해질 수 있었고, 둘째날 최현숙 지탁연 전회장님으로부터 지탁연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세째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보육교사', 마지막 네째날 '교육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처음 아무 준비없이 교육에 임했던 나는 한주 한주 지나면서 보육교사로서의 나를 되돌아보게 됐다. 짧은 4개월의 생활동안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왔나.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신진교사교육은 거북했던 속이 풀리는 것

같은 날 뭔가 찝찝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시원함을 주었다. 늘 우리집과 우리집 아이들만을 생각하고 걱정했던 나.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더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방관하고 있었던 나.

이렇게 우물안에 갇혀있던 나에게 밖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아이들에게 성은 평등한 것이고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못하고 실수해왔던 것 등등을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마지막날 교육을 마치고 뒷풀이 시간에 간단한 소감 발표도 있었다. 모든 선생님들 얼굴이 참 밝았고 의욕에 가득차 있었다. 드디어 5월15일 인천보육교사회 스승의 날 자축연 행사때 우리 7명의 새내기 선생님들은 4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인천보육교사회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인정을 받는 신진교사 인준식을 가졌다. 참으로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 '나도 인천보육교사회 회원이 됐다' 새내기 교사들의 밝은 모습



뭣도 모르고 갔던 92년도 영등포 성문밖 교회에서의 가두시위, 자활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곳이 아닌 것 같으며 친구와 함께 울던 일, 보육교사가 되기로 마음먹던 순간, 주춤거릴 때 옆에서 함께 해주었던 친구와 후배들 사랑스런 아이들 얼굴이 스쳐지나갔다. 나에게 힘을 주었던 친구처럼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로 인간으로 거듭나고 싶다.

교육준비하시고 교육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신 문유미, 고정미, 김명숙선생님, 최현숙선생님, 인천보육교사회의 모든 선생님, 그리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해주신 새싹방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보육교사로 첫발을 내딛은 결의를 내 이름 3행시로 대신 할까 한다.

안-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며, 경-경솔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아-아이들과 보육교사회를 사랑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인천보육교사회 새내기 선생님들 지켜봐주세요!!!

현장소식

‘북한여성, 어린이 돕기’ 정성껏 모금하였습니다

· 편집부 엮음 ·

지난 4월 보육교사회 건설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여성, 어린이 돕기’운동에 지역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1차 모금액은 지난 5월19일 한겨레신문에 기재되었고 지금도 계속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편집부에서는 지역위원회의 모금상황을 소개하며 너무나 흐뭇한 마음을 본회 회원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봉천지역위원회

어린이집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였고, 아이들이 저금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교사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교사들과 자활들도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모금액은 104,040원입니다.

남부보육교사회

새터어린이집은 자모회때 북한실정을 담은 비디오를 보고 토론하여 자모들이 5,000원 이상 걷기로 하여 105,000원을 모금하였고, 다우리어린이집도 자모회의때 비디오를 보고 일주일에 한번쯤 점심 굶는다 치고 10,000원씩 내자고 합의하여, 모금함 설치 2

주간 모금활동을 하였고, 교사들도 참여하였습니다. 모금액은 총 503,480원이고 한차례에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튼튼어린이집은 지난 3월 서울여성노동자회 10주년 기념식에 참여하여 북녘돕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인천보육교사회

인천지역의 시설에서는 자모교육을 통해 각 어린이집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모금을 하였고 교사들도 참여하였습니다. 모금액은 새싹들의 방 어린이집 교사·부모·어린이 37,000원, 나눔어린이집 교사 20,000원, 예술어린이집 교사·부모 100,000원,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부모·어린이 95,000원, 햇살어린이집 교사 30,000원, 우리동네어린이집 교사·부모·어린이 40,000원, 발음어린이집 교사·부모·어린이 72,080원, 갈산동 여성모임 200,000원입니다.

안산지역위원회

진달래동산의 자모회의 시간에 논의하며 성의껏 내기로 하여 부모들과 교사들이 모금을 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재정난으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였고 모금액은 308,500원입니다

수원지역위원회

수원지역 시설에서는 자모회의때 북한비디오 보기와 여연에서 나온 북녘돕기 자료를 보며 부모들은 10,000원씩 일괄적으로 내자고 하여 230,000원을 모았고, 교사 7명은 생활비를 아껴 56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모았습니다. 수원지역은 시설의 재정난으로 교사인건비를 몇달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북녘동포와 아픔을 함께 한다는 각오로 성금을 냈다는 후문입니다.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의 김경혜사무국장님이 원고를 보내신 것입니다.-

부산보육교사회는 4월에 성금을 1차로 마감하여 876,000원을 모았습니다. 5월 모금액은 710,000원이고요.

성금을 내신 분은 동래구지회, 자람터 자모(정대찬, 이태희, 김성훈, 손정민, 김민지, 최운재, 정재욱, 김정윤, 박지은), 김진희, 김혜원, 김정은, 김향진, 나선임, 최정일, 민순영, 한혜정, 김경혜, 김명선, 박찬주, 김효정, 이원경, 유경옥, 박은영, 꽃들나라 아이들입니다.

자람터 자모들은 자모회에서 광고하고 모은 것입니다. 꽃들나라 아이들은 쌀을 집에서 얼마씩 가져와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시중가로 사서 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들과 진구지부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매달 얼마를 정해놓고 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양쪽으로 돈들이 나가 가정경제가 파산날 지경이라나요. 그래도 빚내서 내는 사람들도 있다며 기쁜 마음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옥수수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북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든 살림에 성금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지역위원회

광주지역은 보육시설에 북한 관련사진을 붙여 실상을 알렸습니다. 모금활동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아이들이 밥먹을 때마다 자기가 먹는 만큼 한 움큼씩 모을 수 있도록 부모들께 협조를 부탁하여 모은 쌀 40kg을 어린이집에서 시중가로 바꿨습니다. 교사들도 참여하여 모금 총액수는 120,000원입니다.

전북 아이사랑교사회

전주지역의 금암어린이집과 뚝데어린이집

은 시설에 교사들이 아이들 저금통을 마련해 아이들이 매일 저금을 하고 있고 쌀도 모으고 있습니다. 익산의 정다운어린이집은 지난 주 한 독지가가 현물을 후원해주어 부모들과 바자회를 열어 그 이익금 전액(아직 미수금이 많아 액수는 정확하지 않음)을 북녘돕기 성금으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광대 축제때 정다운 아이들이 초청을 받아 축하공연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공연을 마치고 아이들이 북녘친구에게 쓴 편지를 남독하여 대학생 형아들이 감동하여 즉석에서 모금활동을 하였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국 80,000원, 연구소 50,000원, 자료회원 정순옥 20,000원, 편집위원 황미혜 30,000원, 부천 동그라미어린이집 100,000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북한여성, 어린이 돕기에 성심성의를 다한 우리 회원들 모두 훌륭합니다. 이 성금은 여연에서 적십자로 보내 곧 북한으로 갈 예정입니다. 뜨거운 동포애를 보이신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거듭 드립니다.

지탁연 선생님들께

愛育保育園(副園長, 円奈千鶴子)

♡히로시마에서 온 편지♡

지난 4월 본회에서 연수를 한
히로시마 애육원의 부원장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본회 회원들과
나누고자 편지의 전문을 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은 요즘 쾌청한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년중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지난 4월 19일~23일까지 한국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시찰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시설의 선생님들이 너무도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지금도 매일 누군가에게 한국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보이곤 합니다. 너무도 좋은 멋진 교유를 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도 한국에서의 견학내용을 그리고 자필등을 여러 단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한국을 학생 부모님께 여러가지로 설명을 들어가며).

한국의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보육내용에는 재삼 관심이 많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저 자신으로서 일본이 배워야 할 복지정신의 원천인 「마음」과 「미소」에 대단히 탄복했습니다.

항상 교사로서 어린이, 보호자가 일체가 되어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은 일본의 어린이를 키우는 학교, 보육원에 있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함께」라는 기본 원칙은 이러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또한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하여 인간의 소중한 「마음」, 「정신」의 면이 점점 경어되기 쉬운 요즘 인간이 인간을 거느리기 위해 불가결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다시금 확인된 듯 합니다. 특히 신체발달을 위한 식사준비(재료·조리)는 인스턴트 식품, 조미료 등이 식탁을 장식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고 즐겁게 먹는 일이어야만 신체발달과 직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식사분위기를 보고 어떤 공유부분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보육이 변화해가는 것은 뉘나뉘나해도 소자화(少子化, 자녀수가 줄어듦) 문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직업여성의 지원, 보육지원을 위해 보육원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아보육, 연장보육, 재택지원사업, 휴일보육, 병아(病兒)보육, 일시보육 등 여러 다양한 사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많은 가운데 시행착오속에서 보육을 행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관계는 이상으로 많았을 끝내겠습니다.

히로시마시는 5월 2일 한국 대구시와 자매도시 제휴조인을 가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를 기념하여 다양한 교유행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TV나 신문은 보다가 한국의 뉴스나 학제가 눈에 띄면 예전에 비해 훨씬 역실히 집중해서 보게 되고 식탁에서 건치는 매일 빠지지 않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몹으로 체득하고 익힌 것들이 너무도 크고 신선했기 때문이었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육아일기

엄마의 살아가는 법 배우기

나은미 · 고양 오손도손애기방 교사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세계'와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이 태어나서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 배우면서 자라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몸을 지탱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익히게 되고, 먹이를 찾는 법, 천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무리 내에서 차지한 자리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유빈이를 보면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물이 지나도록 제대로 서지도 못하더니 한 달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잡잡고 일어선고, 한 손만 잡아주어도 걸음마를 하고, 쪼그리고 앉아 엉덩이를 들쭉이며 일어선고 하고 미끄럼틀 계단을 혼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세상구경을 하기 위해, 두 손을 마음껏 쓰기 위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습에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는 문제는 유빈이를 보면 더 아리송해집니다. 놀다가도 먹이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꼭 먹어야 한다는 눈빛으로 정신없이 기어와 한자리를 차지하고 빨리 달라고 소리를 냅니다. 배가 덜 부르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은 엄마가 달라고 애원을 해도 주는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으로 한 말이 '물 줘'인데 이것만으로도 유빈이에게서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놀이방 생활 5개월이 만에 유빈이는 피비린내나는 생존경쟁(?)을 경험하고 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유빈이는 순한 편이어서 놀이방에 오는 언니, 오빠들에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누가 때리거나 물거나 꼬집어도 반항도 못하고 우는 게 고작이어서 얼굴에는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래들을 때리고 울리라고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유빈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강철은 이렇게 단련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언니, 오빠들에게 시달리는 것은 마냥가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놀이감은 그 누구에게도 좀처럼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요즘 유빈이는 자기를 예측하는 사람을 잘 따르고 예고도 부린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랑 아빠랑 다정한 모습 나란히 누워있거나 살짝 안는 시늉만 해도 울 보이면 기겁을 하고 물면서 둘 사이에 파고들거나 손으로 때어내려고 합니다. 샘이 나서인지 같이 놀자고 그러는지 아니면 동생이 생길까봐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분명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이것저것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유빈이를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안스럽기도 합니다.

유빈아 힘내라.

엄마와 아빠와 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세상이다.

탁아소별곡

새터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 이야기 하나 - 마른 하늘에 웬 비?

민석이가 준태에게 책을 읽어주겠다고 옆에 앉았다.

민석 : 준태야. 이것 좀 봐.

준태 : (갑자기 재채기를 한다) 아—취

(준태의 재채기로 많은 양의 침이 튀었다)

민석 : 선생님 비가 와.

☺ 이야기 둘 - 리믹스 스토리

낮잠 자고 깬 무렵 한결이가 돌리 노래를 불러보란다. “요리 보고—” 시작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맞춘다.

조금 부르고 있으니까

아심 : 하지마요. 그만 불러.

(한마디 더 부르자) 하지마. 그만 불러. 옛날얘기 해줄게. 호랑이 얘기.

선생님 : 호랑이 얘기?

아심 : 아니. 아니. 호랑이 얘기 말고. 음—

선생님 : 옛날 이야기 해줘.

아심 : 옛날 옛날에 성우가 살았어요. 옛날에 아심이 살았어요.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선생님 : 그래서?

아심 : 울고 있었어요. 영영 울었어요. 초콜릿 달라고 울었어요.

선생님 : 그래서?

아심 : 엄마가 ‘아눔’ 했어요. 이렇게 맘매했어요. 엄마가 안아줬어요.

선생님 : 그래서?

아심 : ‘사랑해’ 했어요. 호랑이가 ‘어흥’ 했어요.

선생님 : 응—

아심 : 내가 호랑이다. 어흥— 잡아먹겠다.

☺ 이야기 셋 - 그냥 놀이터 가자

놀이터에 가려고 준비 중인데 동현이가 실수로 친구를 밀었다.

선생님 : 동현아. 좀 조심해.

동현 : 선생님. 동현이 놀이터 가지마?

선생님 : 아니. 동현인 힘이 세니까 조금 조심하라고.

동현 : 선생님. 동현이 놀이방 오지마?

선생님 : 아니. 놀이터 가자구.

☺ 이야기 넷 - 식사기도

밥 먹기 전 식사기도를 하려고 밥상에 모여 앉았다.

선생님 : 자. 이제 ‘아버지. 감사해요’ 하자. (모두들 노래를 시작한다)

지희 : 아버지 아버지 감사해요. 남남남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은 ‘무엇이 무엇이 똑같아요’에 맞춘다)

정민 : 아니야. 아버지 말고 어머니. 아기가 할게(정민이는 자기를 아기라고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해요. 남남남 맛있게 먹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애들이 맛있게 먹자.

이렇게 점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아줌마를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다.

☺ 이야기 다섯 - 나도 고집있다고...

낮잠을 재우려고 해선이에게 ‘박박 비가지’라는 옛날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다. 내용인즉,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왔는데 안에 있는 할머니가 밖에 누가 온 것 같다며 할아버지에게 자꾸 나가보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쥐겠지. 고양이겠지. 강아지겠지. 소겠지. 하는데 코끼리를 본 적 없는 도둑은 “코코 끼리끼리”하는 것이다.

선생님 : 해선아. 코끼리는 어떻게 우는 줄 알아?

해선 :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시늉을 한다)

선생님 : 아니. 쥐는 짹짹 울고, 고양이는 아옹아옹 울고 강아지는 멍멍 우는데 코끼리는 어떻게 우니고.

해선 : (다시 손등으로 눈물 닦는 시늉을 한다)

우리들의 목소리

출산, 복귀 그리고...

전경숙 · 수원 올망졸망어린이집 교사

“애나 크면 나가자, 무슨 영화가 있다고 몸도 다 아물지 않았는데 벌써 나가니?”

주변의 걱정 어린 말에도 아랑곳 않고 소년이 백일이 지나자 곧바로 올망졸망에 복귀했다. 6개월의 출산휴가가 내게는 지루했고, 주변 보육교사들을 보면 백일이 되기 전에 복귀하기도 했기 때문에 출산후 백일까지 쉬고 나니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다.

복귀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른 아이도 예뻐하며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예전에 예사로 보고 넘겼던 아이들의 성장, 변화가 새삼스레 다르게 느껴지고 놀라기까지 했다. 소연이가 태어나서 백일동안 조그만 변화에도 놀라고 감탄하던 버릇 때문이라. 아무튼 소연이를 낳기 전보다는 다른 느낌으로 아이를 하나하나가 예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자신있던 집안일과 소연이와 올망졸망 일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에 수시로 깨는 소연이 덕분에(?)에 밤잠을 푹 못자니 낮에 가쁜하게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요령이 생겨 낮에 낮잠도 자고 집에서도 소연이가 잘 때 자려

고한다. 그리고 그동안 소연이도 컸기 때문에 밤에 덜 깨고, 깨서 울어도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있는 교사들의 배려도 큰 위안이 된다. 아이를 낳아본 교사들은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알고 신경써준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탈없이 '조화'를 지켜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아이를 키우며 보육교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보육교사 “화이팅!”

참 그리고 도지사 표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부끄러웠다. 구에서 한명씩만 뽑는 것이라 나름대로 근거가 필요했고, 그래서 공적사항을 적어내라고 했을 때 보육교사를 시작하고 7년동안 이렇다하고 크게 내세울 일을 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

계획한 일은 많은데 실천한 것이 적고 일이 닳치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하루하루 살 아오기에 바빴던 것 같다.

표창 때문에 7년간의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몇발자국 앞을 내다보는 교사로, 계획한 일은 지켜나가는 교사로서 살아가리라 생각한다. 사실 내가 표창을 받았지만 수원지역 교사 누가 받아도 손색이 없고 지탁연으로 보면 더더욱 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다.

지탁연 교사 여러분! 모두 도지사 표창감임을 명심하고 지금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보육계 풍향

(사)한국어린이육영회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특강 “나의 참모습”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MBTI(성격유형진단)

의사소통 및 갈등극복 프로그램

-부모 자녀관계/-부부, 고부, 가족관계 등

한마음 한마당-레크리에이션, 스포츠댄스

전통예절(절대 및 혼례를 중심으로)

간편하고 건강한 아침식사

“행복,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별과 음악과 나/-참관남

대상:교육 및 자녀교육에 관심있는 여성

일정:(1박2일)합숙교육, 일정 조정가능

-1차: 9.25(목)~9.26(금)

-2차: 10.9(목)~10.10(금)

-3차: 10.23(목)~10.24(금)

장소: 본회 생활관

교육비: 65,000원

신청방법: 교육비를 온라인 입금 후 5일내에 부모교육과로 전화확인 통보

(한일 160-00842-03-001 한국어린이육영회)

신청기간: 1997년 8월31일까지

교육문의: 연수원 부모교육과

☎ (02) 431-0685~6, Fax. (02) 431-0684

(사)한국어린이육영회 치료교육연구

소 세미나 개최 안내

육영회 치료교육연구소에서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학습장애 치료법

일시:1997년 6월28일 토요일(08:20-18:00)

장소:육영회 5층 대강당(송파구 신천동 7-12)

대상:1) 특수학교(급) 교직원 및 관련종사자

2) 특수교육과, 심리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교수 및 학생

3) 초·중등학교 교직원

4) 조기교육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관련 종사자

세미나 내용 및 발표자:

-주제1. 학습장애의 조기징후와 조기교육의 효과

Daniel MELLIER(Rouen대학 심리학 과장, 유아행리·심리전문가)

-주제2. 난독증(難讀症)과 만성학습피로증

김양희(한국어린이육영회 치료교육연구소 소장)

-주제3. 난산증(難産症)이 다른 과목에 미치는 영향

Isabelle CAUSSE(파리국립병원 언어치료과정)

신청안내:

1) 인원:400명(선착순)

2) 참가비:35,000원

3) 등록방법:참가비를 실명으로 계좌에 입금 후 치료교육연구소로 연락처를 알려주기 바람.

160-001620-13-002(한일) 한국어린이육영회 문의: 치료교육연구소

☎ (02) 202-1505~7, Fax. (02) 413-7896

서울시민대학 7월 개강

직장인, 주부 등 일반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서울시민대학'이 서울시립대 부설로 설립돼 7월1일 첫학기가 개강된다. 또 같은 시기에 을지로 옛 미문회원 건물에 강북시민대학을, 9월에는 강남시민대학 등 분교도 개설한다. 시민대학은 ▲지방자치·자원봉사 등을 다루는 '자치시민' ▲서울의 역사·문화를 가르치는 '서울학' ▲문학·음악·미술사·법률·세무 등의 '문화교양' ▲영어회화와 컴퓨터관련 전문교육 등 4개 강좌를 개설한다. 학기당 3개월로 연 4학기 편성되며 수강인원은 강좌당 300명(문화교양 강좌 1천명씩 2천명)이다. 무료이며 수강생은 6월중 신문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문의:시정개발 담당관 02-731-6552)

소식과 소식

김영삼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5월19일(월) 오후 1:30-5:00까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여연 주최로 <김영삼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여연 회원단체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빈곤문제/경제세력화/교육훈련/가족/미디어/통일평화/성인권/정치참여/환경 등 분야별로 여성정책을 평가, 과제를 제시하였고 정부와 국회 등에 여연이 제시하는 여성정책 30대 과제를 제출하였다.

복지부 아동복지과 초청 간담회

5월9일(금) 오후 2:30-5:30까지 복지부 아동복지과 초청으로 보육관련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본회를 비롯하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보육교사교육훈련원연합회의 대표들과 서울대 이순형교수, 아동복지과 과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보육의 질 개선방안 ②제도개선 방안 ③보육사업 예산 확보방안 ④보육정보센터 활성화방안 등의 주요과제에 대해 복지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본회에서는 남미영회장과 보육정보연구소 정희연소장이 참석했다.

2차 여연 이사회

5월26일(월) 오후2:00-5:30에 여성평화의집 지하회의실에서 여성단체연합 제2차 이사회가 있었다.

회원단체 사업보고/여연 사업보고/안전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하게 다루어진 안건은 ①신규회원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준회원

으로 받기로 결정 ②(가칭)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에 여연이 가입하기로 결정 ③ 6월17일-20일에 열리는 여연 10주년기념 국제여성평화포지움 참가에 관한 건 등을 토의했다.

오사가 일본연수생 출국

5월17일(토) 오전 11시55분 비행기로 한일보육교류연수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보육연수생 4명이 일본으로 떠났다. 약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이번 보육연수생들은 성화보육소, 희망의문보육소, 예신보육소, 성애원 등 4곳에서 2개월간 연수를 실시하고 7월16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간 일본연수가 시설 탐방등을 통해 양국의 보육정책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교류였다면 올해부터 장기간의 연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보육프로그램이나 교사관련부분, 아동의 문제 등 보육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며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지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봉천지역위원회

●봉천지역위원회 두 어린이집이 봄소풍을 롯데월드로 갔다왔습니다. 계획은 과천경마장으로 갔는데 정이었으나 비가 와서 부득이 롯데월드로 갔었는데 놀이기구 몇개 타면서 재미있게는 놀았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소풍이었다고요.

●5월28일 봉천지역에 자원활동을 나오는 중앙대 사람터 친구들이 어린이집 운영비 마련을 위한 일주점을 합니다.

남부보육교사회

●5월5일 어린이 큰잔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본문기사 참조).

수원지역위원회

●5월5일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어린이'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본문기사 참조).

인천보육교사회

●인천보육교사회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6월1일 중앙역 부근 '바텐호프'에서 일일호프를 합니다.

부산보육교사회

●5월5일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7회 "가슴펴고 어깨걸고" 어린이날 행사가 교육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아마당을 맡아 했는데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부모와 아이들이 많아 참 행복했습니다. 6년 정도 계속한 보람이 있더군요. 그날 수고하신 이모, 삼촌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피곤한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익사업

●5월13일-16일 부산대학교 대동제 기간에 주점을 하였습니다. 상대학생들과 포구나무집에 자원봉사활동을 오는 유레카 이모 삼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퇴진지 1년정도 되는 김양희선생님이 잠시 쉬고계셔서 사무국장이랑 같이 했습니다. 김양희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익금은 140만원. 축제 전야제 때마다 비가 와서 사람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만 우천속에서도 굳굳하게 해줬습니다.

●5월26일-28일 경성대 축제기간에 분식집을 합니다. 나라사랑이라는 동아리에서 회장님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아기자랑터 주점할 때 같이 했던 팀이라 잘 할거예요. 수익금은 전회하세요. 알려드리죠.

●5월30일 부경대 동아리 여는마음에서 일일호프를 합니다.

어린이집 자원봉사활동하라, 행사때 도우미하

라, 수익사업때마다 일꾼하라 여러가지로 도와주는 이모삼촌들 고맙습니다.

●기타소식

*사무실이 이사했습니다.

부산문화센터 3층에서 꽃들나라 內 교무실로 옮겼습니다. 주소는 아래.

*꽃들나라가 이사했습니다.

주소는 주례2동 산8-18번지 10/5. 이름도 바뀔입니다. 주감어린이집으로요.

우리들의 집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포구나무집으로요. 집 마당에 큰 포구나무가 있거든요. 바뀐지 좀 되었어요. 소식지로 인사를 안한 것 같아서 합니다. (정리:부산 김경혜사무국장)

사람들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5월11일 광주 가람놀이방 배미정선생님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어떤 모습 여전 할까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연합회 5월 일지

1/건준위3차회의

6/집행부회의

10/조직부1차회의

15/보육교사회 창립 대회준비팀 회의

정책개발위원회 회의

편집회의

19/집행부회의

22/보육교사회 총회준비팀 회의

26/집행부회의

여연이사회

28/여연 임원과 소간담회

창립대회준비팀 회의

30/편집회의

■■■ 편집부에서 ■■■

♣이상기류가 흐릅니다

때 아닌 불장마가 계속되고 호텔방에서 일반서민이 정치인들 각성하라고 돈을 뿌리는 사건 등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아직도 북한동포실상에 냉담한 반응만 보이고 정말이지 나라가 걱정됩니다.

♣희망의 6월?

올해로 6월항쟁 1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곳곳에서 기념화술제 및 행사가 한창이고, 역사의 주역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탁연의 역사 10년! 우리는 참으로 격동기를 살아온 것 같아 만감이 교차됩니다.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최진영, 염정숙, 임민행, 박성연, 이영복, 이정수
6개월 구독 : 강은향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제작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특히 본인 아닌 타인명이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도 드리니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육교사회 로고, 노래가사를 공모합니다

보육교사회 발족을 앞두고(7월26일 예정) 본회에서는 보육교사회를 상징하는 로고와 노래가사를 공모합니다. 관심있는 회원, 자료회원들은 6월말까지 응모하여 주시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제주 많은 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02-275-8506 본회 조직부장 박정애)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지연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창립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늘푸른대리점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산손해 · 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재투자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늘푸른대리점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용 PC통신으로 제공하며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 가입과 상담편의를 위해 개설했습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아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2,800원	1인당			
	의료실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2,915원	5,775원	배상책임보험 학교 경영자 특약요율의 8%적용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6,510원				
	의료실비	100만원					
재산손해	건물 및 장기비용 (보험가입금액 1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화재요율 8% 적용)				화재보험 일반물건 최종 적용요율의 80% 적용 즉, (화재보험 일반물건 기본요율) ×(1±할인, 할증요율)×80%	
			1급	2급	3급		4급
		1등지	6,200원	9,600원	15,725원		24,225원
		2등지	7,200원	12,800원	20,015원		31,105원
		3등지	9,200원	15,215원	24,735원		39,000원
		4등지	11,305원	18,000원	29,280원		45,000원

(늘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